

한일공동세미나

인구감소와 지역격차에 대응하기위한 지역활성화대책

2019년 11월
야마다 게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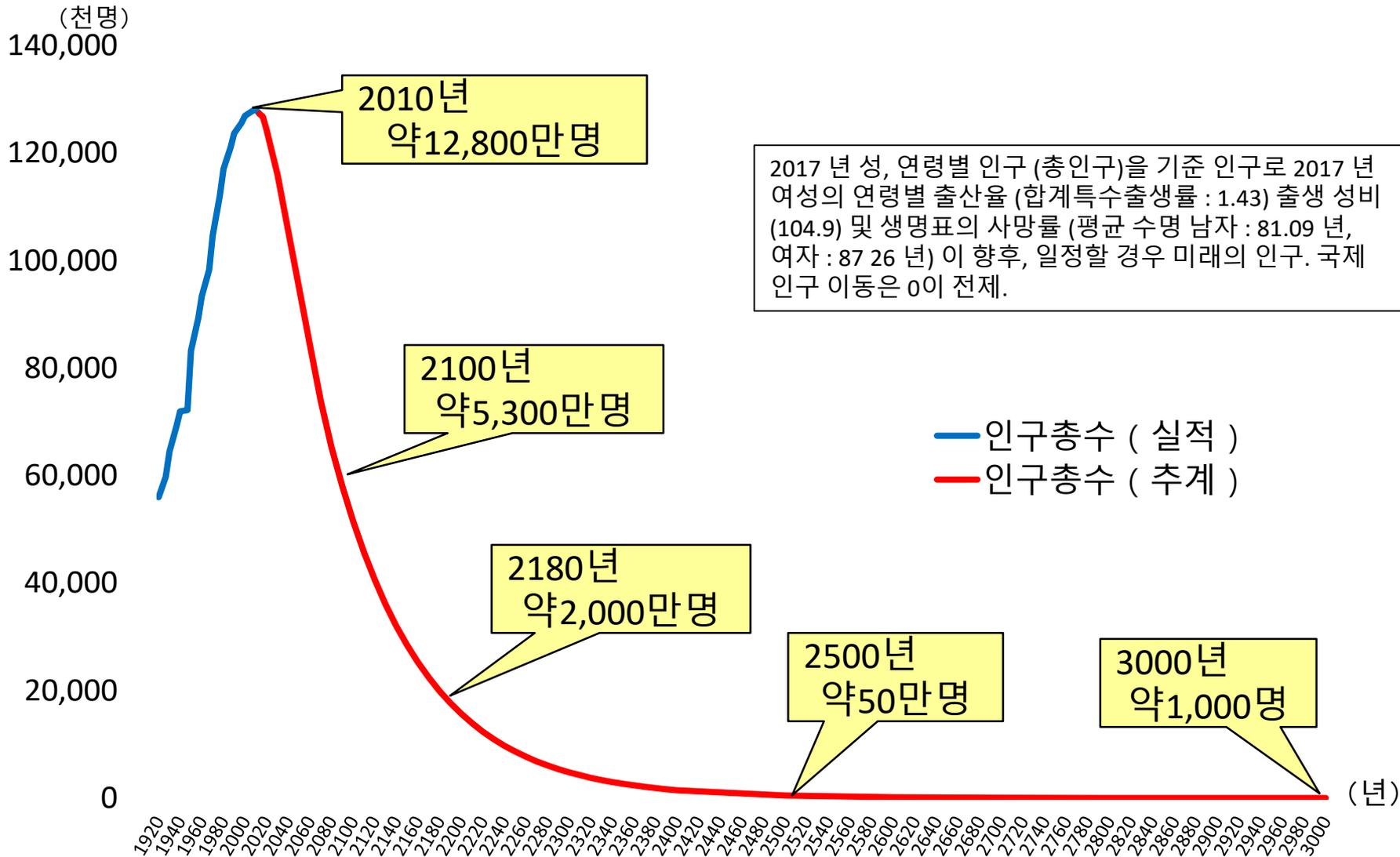
일본의 두 가지 위기
하나, 인구감소
둘, 도쿄일극집중·지역격차

이대로라면

일본은 사라질 것이다.

장래인구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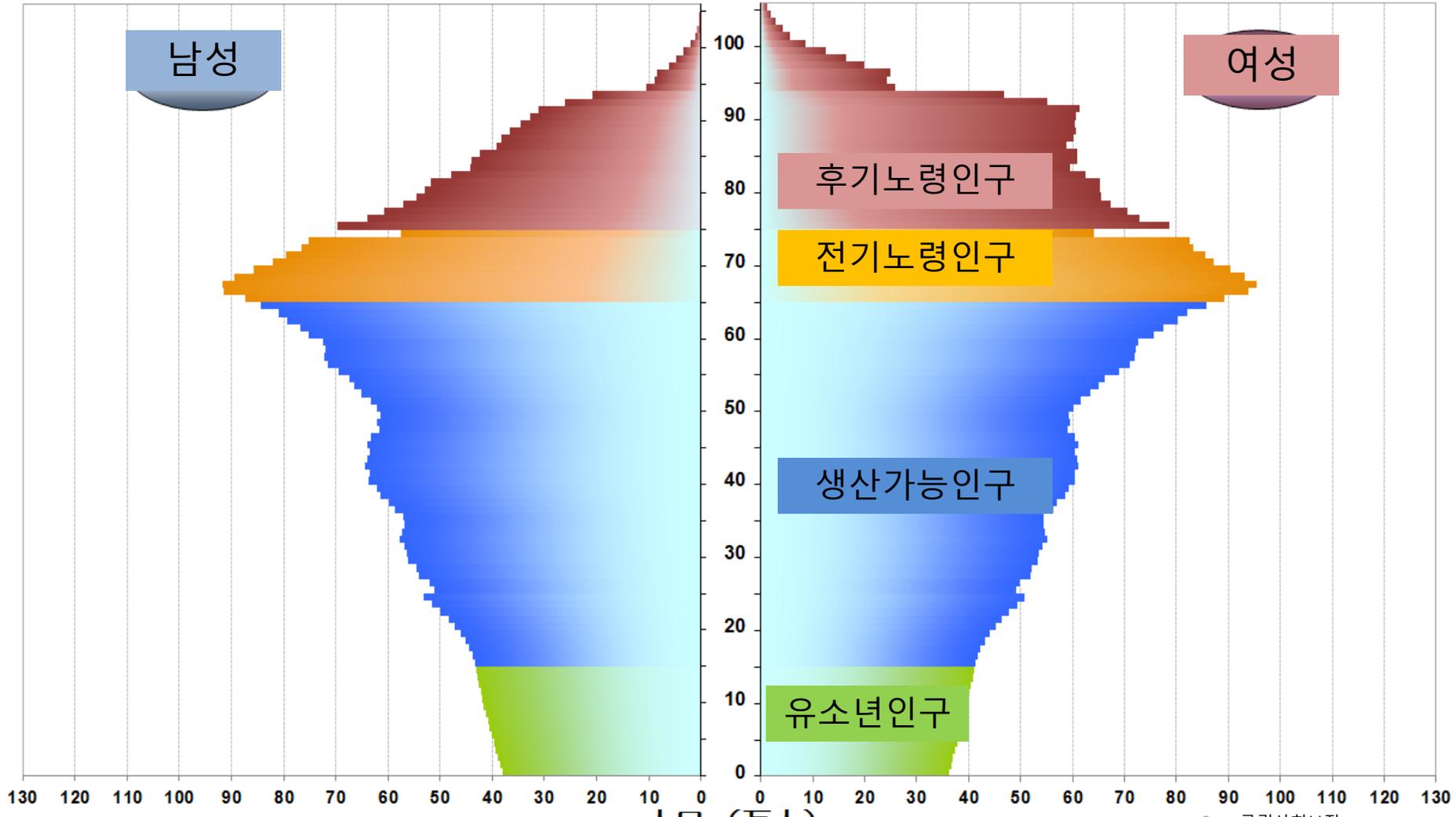
~ (가정)출생자수·사망자수가 향후 일정하게 추이했을 경우의 장래인구 ~



출처: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인구통계자료집(2019)'

장래 인구구성(추계)

● 2040년 추계(전국)



출처: 1965~2015년 : 인구주택총조사, 2020년 이후 : '일본의 장래추계인구(2017년 추계)'(출생중위(사망중위)추계)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출처: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2040년의 인구피라미드 이미지)

게다가,
특히 지방에서는 노인이 노인을 부양하는
국가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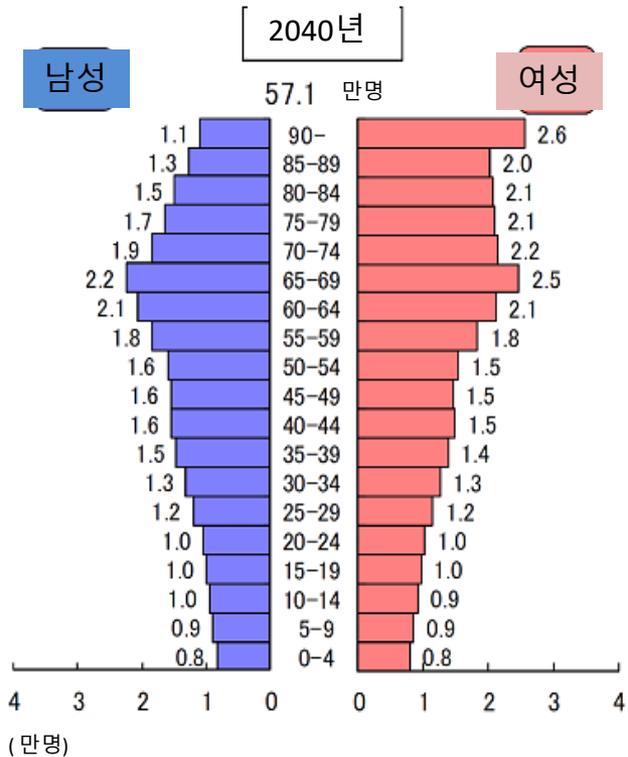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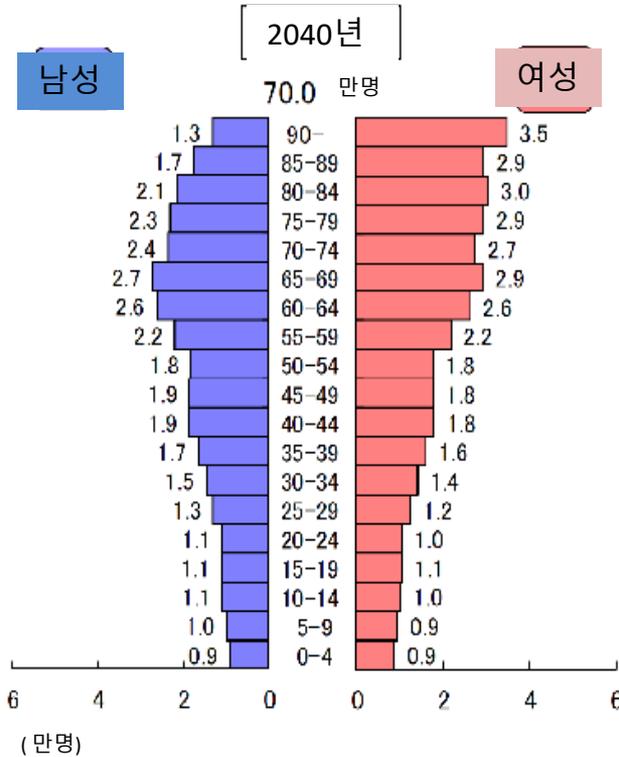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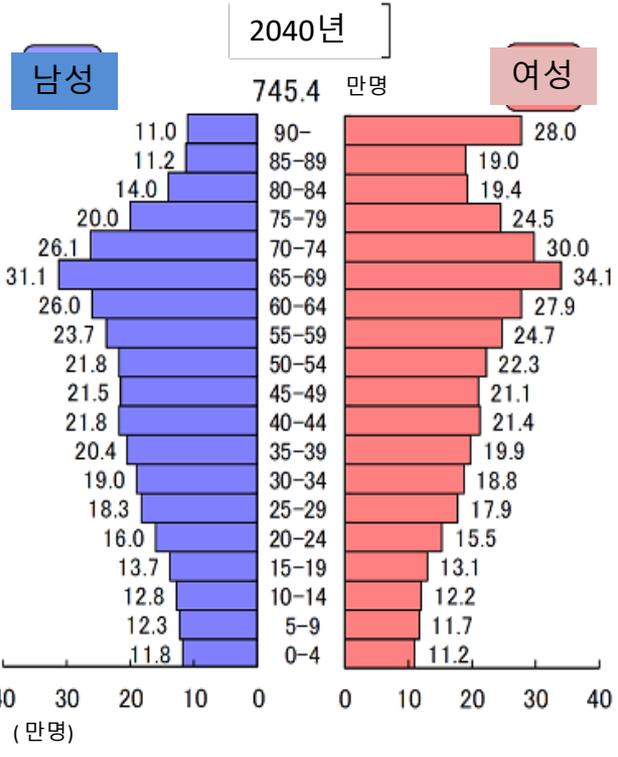
장래 인구구성(추계)

● 2040년의 인구피라미드

<오사카부(긴키지방)>

<아키타현(도호쿠지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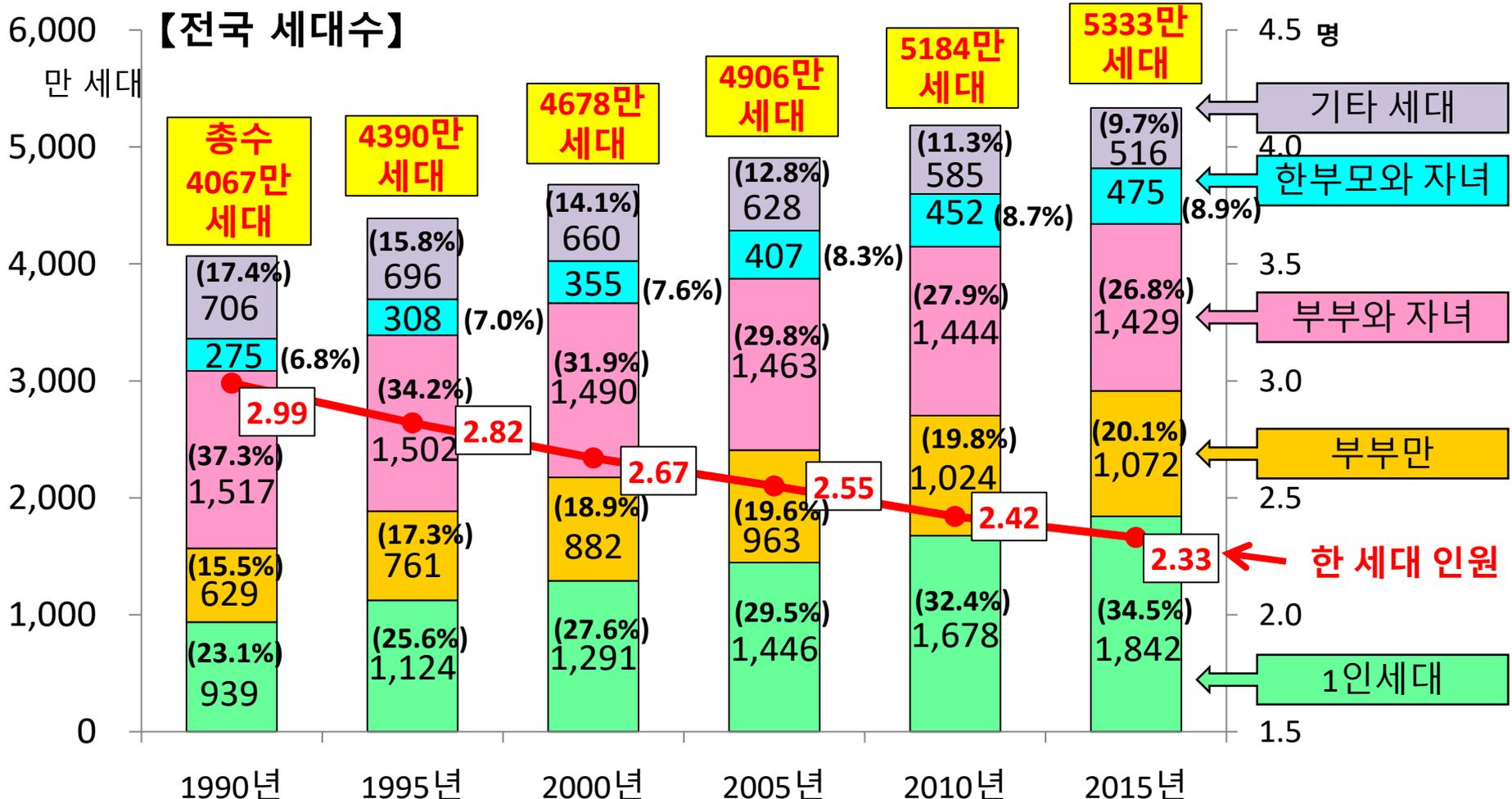
<도쿠시마현(시코쿠지방)>



출처: 후생노동성 제2차 '보건의료 2035' 책정간담회 자료(2015년 3월 9일)
 ※ '일본 지역별 장래추계인구' 2013년 3월 추계.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작성

가족구성변화

- 인구가 감소하는 반면 세대수는 증가
- 1인세대는 1,842만 세대로 최근 25년간 **약2배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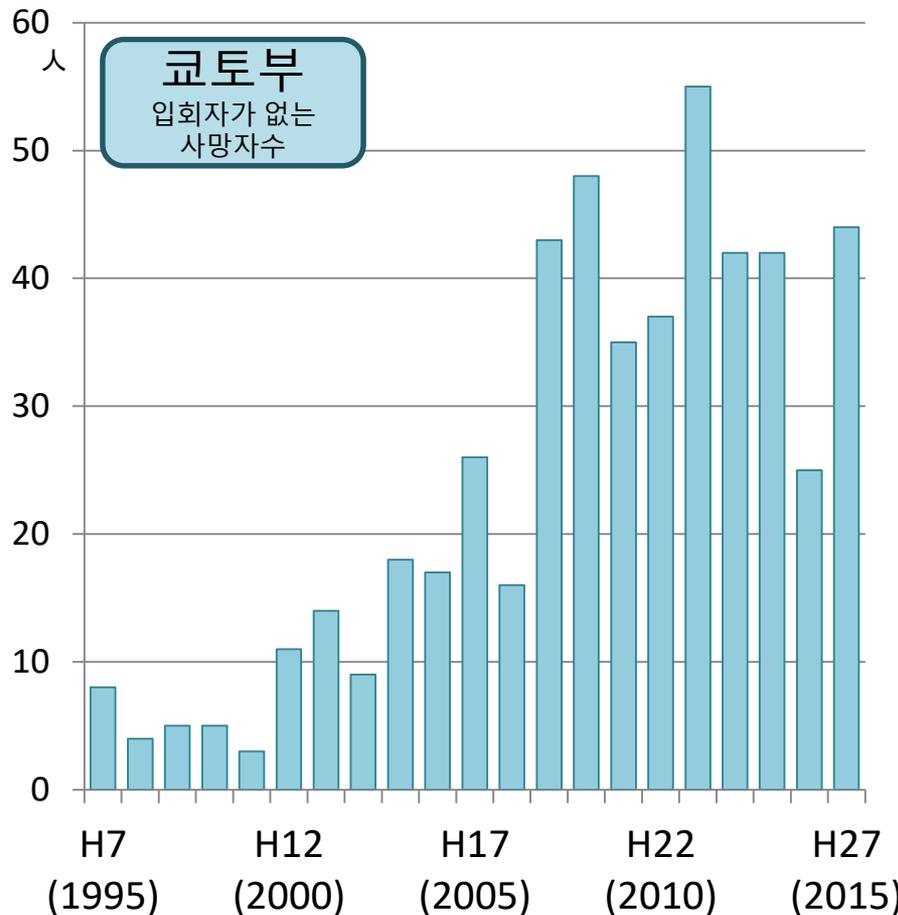
출처: 총무성 '인구주택총조사' 기타 세대에는 유형이 불명확한 세대를 포함. 한 세대의 인원은 사회복지시설 등에 거주하는 세대를 제외한 세대 평균 ※ 표시단위미만은 사사오입으로 내역과 합계가 맞지 않는 해가 있음

- 이러한 변화는 지역을 조금씩 침식해 간다.

고독사의 증가

- 1995년부터 2015년까지 고독사는 **7.5배**로 (사망자수 전체는 1.4배)【전국】
- 교토에서도 고독사는 증가세 (1995년→2015년 : 5.5배)

※고독사, 고독사에 대한 법적 정의와 통계치가 없기 때문에 '입회자가 없는 사망자수'로 대체
 ('입회자가 없는 사망': 사망시에 입회자가 없으며 사인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를 가르키며,
 고독사 일지라도 사망 원인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수치에서 제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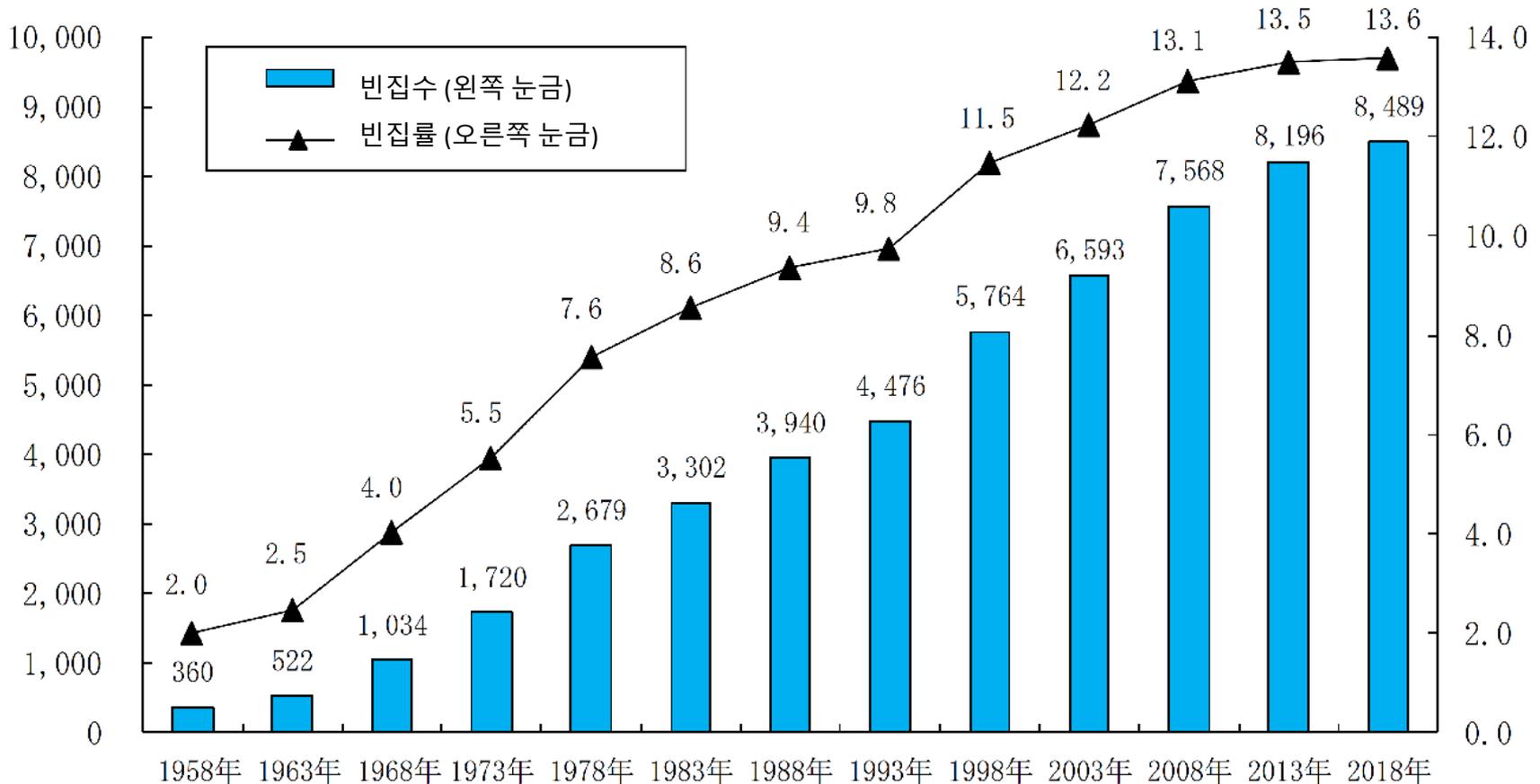


빈집 증가

- 빈집은 848.8만호, 빈집률은 13.6%로 과거 최고기록
- 최근60년 동안 빈집수는 **20배 초과**, 빈집률은 **6.8배**로

(천 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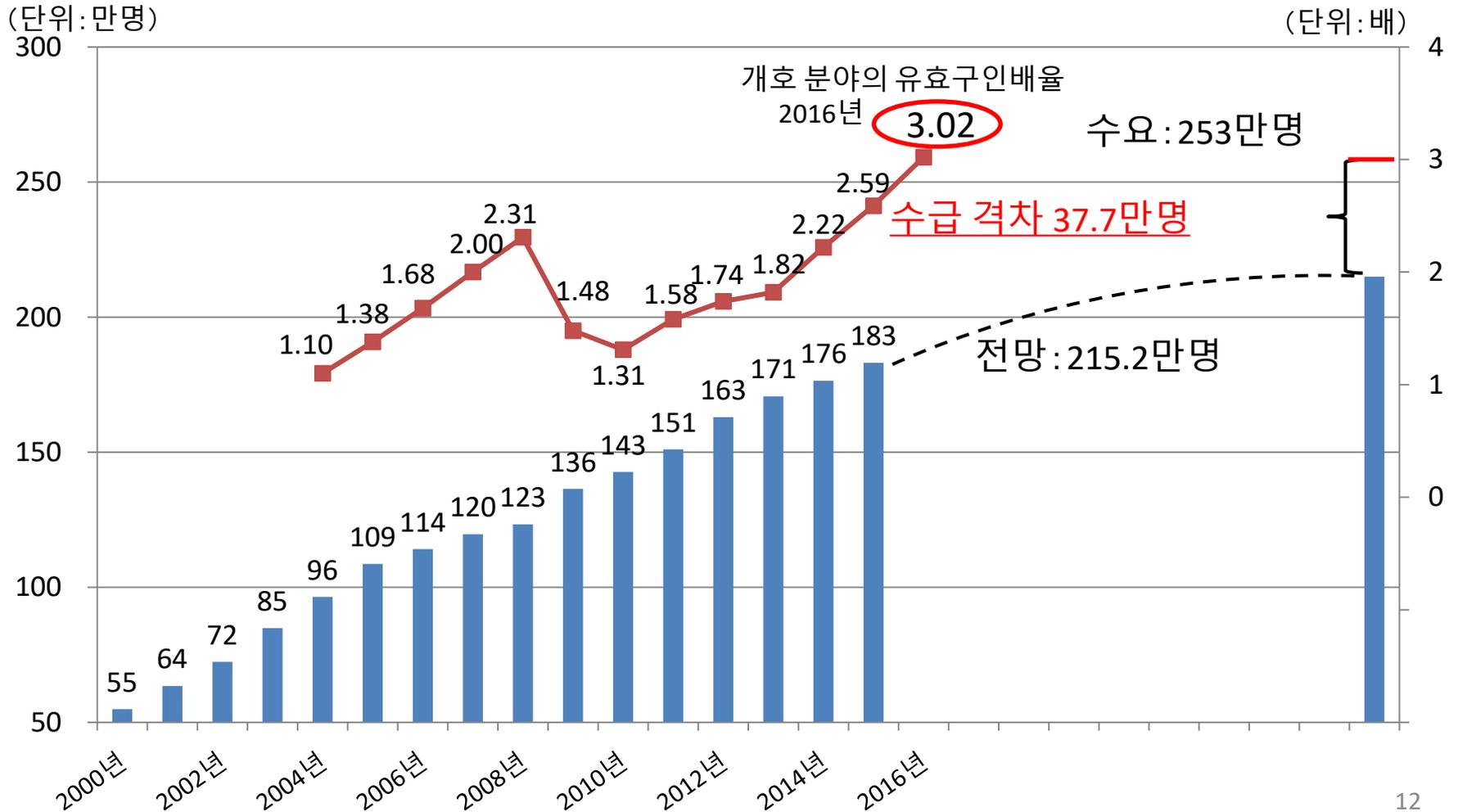


출처: 총무성 '2018년 주택·토지통계조사' 그림2 빈집수 및 빈집률 추이 - 전국(1958년~2018년)

※는 임대용에 매각용을 포함

개호 직원은 크게 부족

- 개호 분야 종사직원은 2015년에는 2000년의 3.3배인 183만명



출처: 후생 노동성 '개호 서비스 시설·사업소 조사', 후생 노동성 '직업 안정 업무 통계', 후생노동성 '2025년을 향한 개호인력에 드는 수급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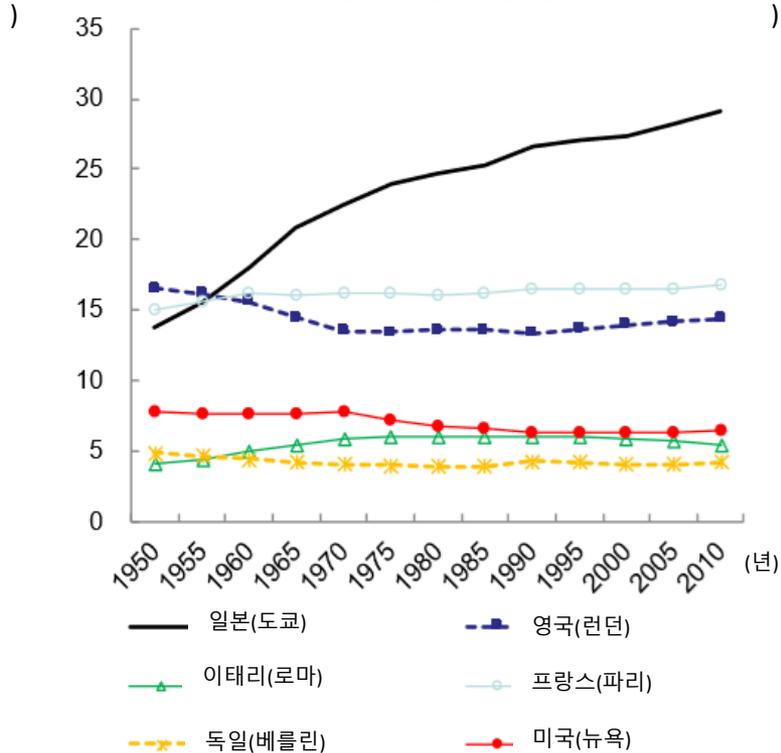
지역격차

- 도쿄일극집중과 이에 따른 지방의 과소고령화의 진행이 인구감소를 더욱 가속화시킨다.
- 약 절반 정도의 기초자치단체인 시정촌(市町村)이 20 후에는 ‘지방소멸가능성도시’가 될 가능성을 유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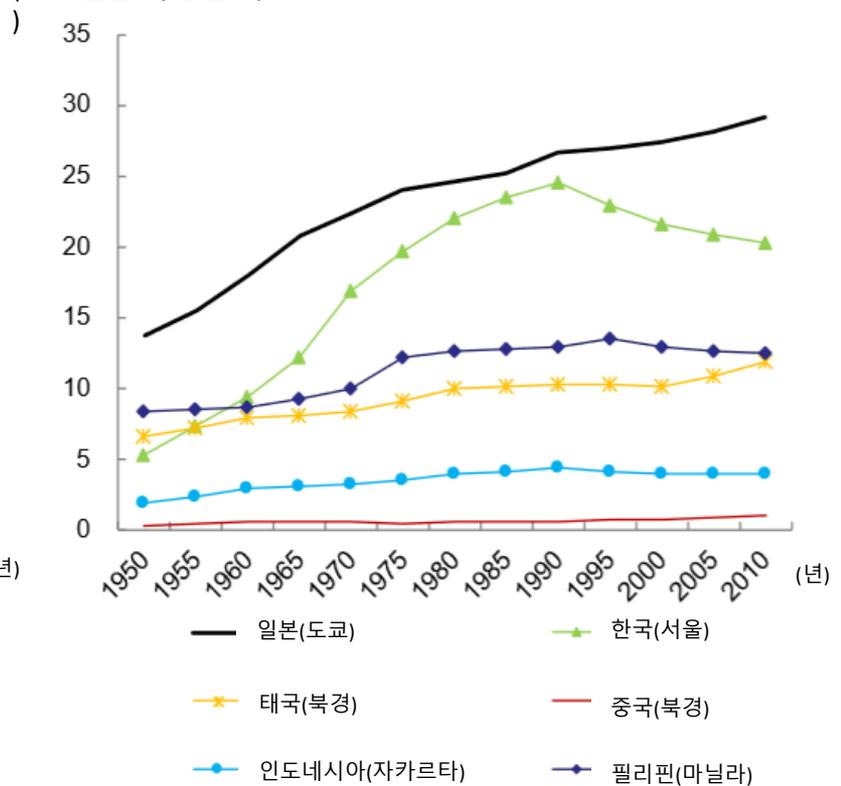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 국제비교

○ 국제적으로 봤을 때 일본의 경우 수도권 인구 비율이 높고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음

(수도권인구/총인구, %) **구미지역과의 비교**



(수도권인구/총인구, %) **동아시아국가와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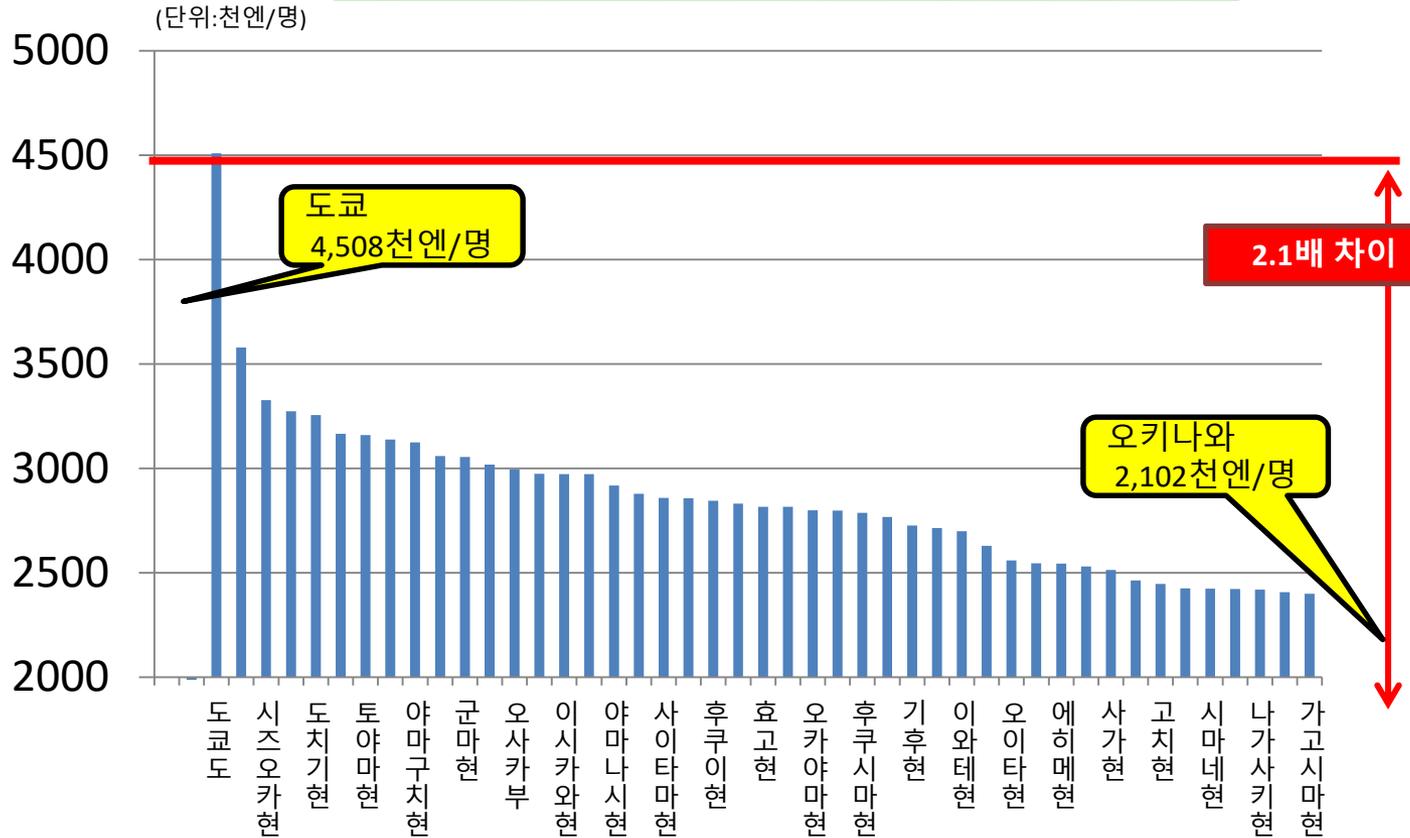


(참고) UN World Urbanization Prospects The 2011 인용

(주의) 각 도시는 도시권 인구 독일(베를린), 한국(서울)은 도시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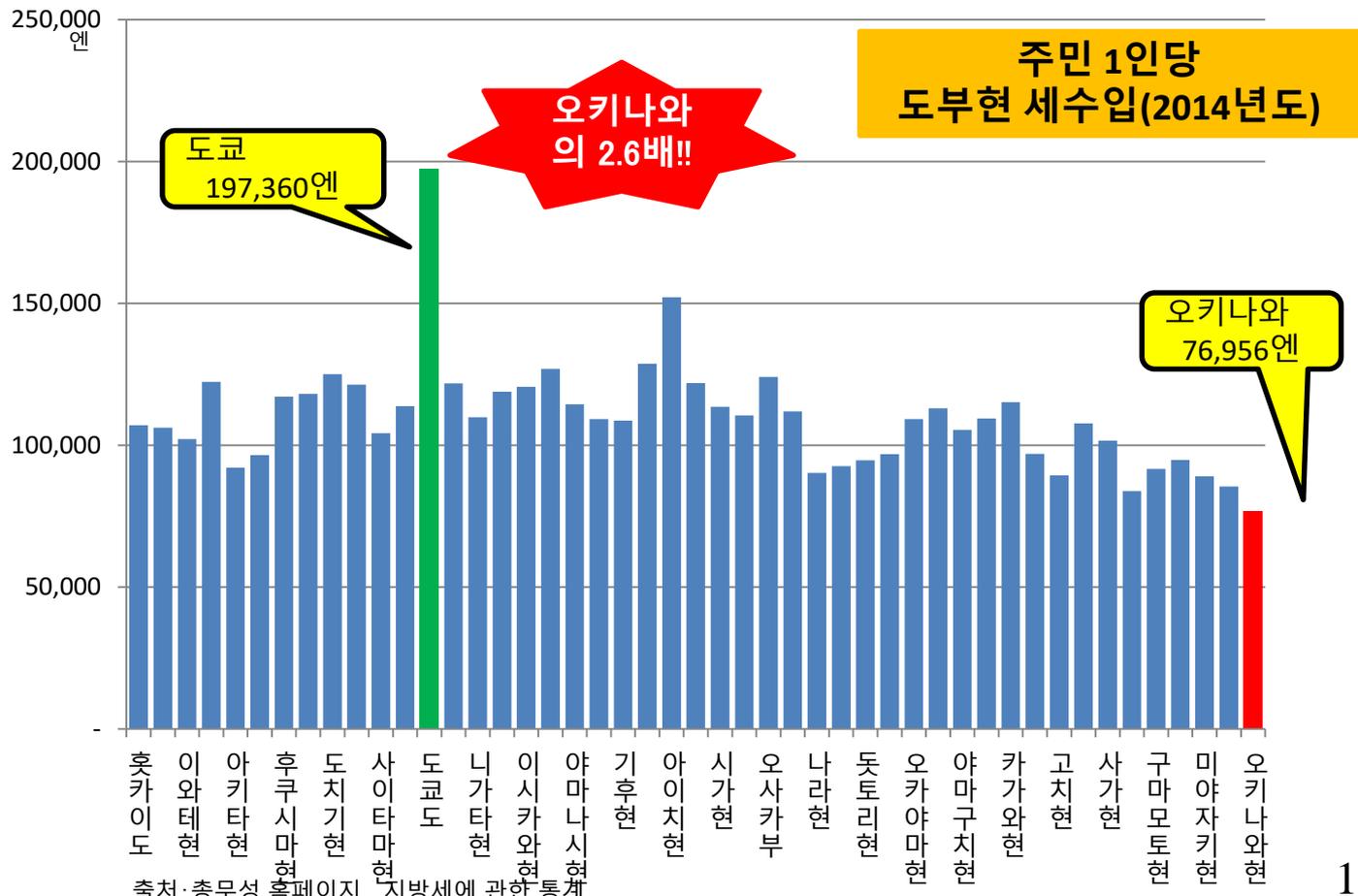
일본(도쿄) 값은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간토대도시권'의 값, 중심지(사이타마시, 치바시, 특별구부, 요코하마시, 가와사키시)와 이에 입접하는 주변 도시가 포함

1인당 현민 소득



출처 : 내각부 경제 사회 종합 연구소 현민 경제 계산 (2013년도)
 ※ 1964년도분에 대하여 도도부현별 인구는 총무성 통계국 '일본 추계 구'의 보간 보정 인구를 사용했으며, 1971년까지 전 현(県) 합계에 오кина와현은 포함되지 않아 불분명

지방세수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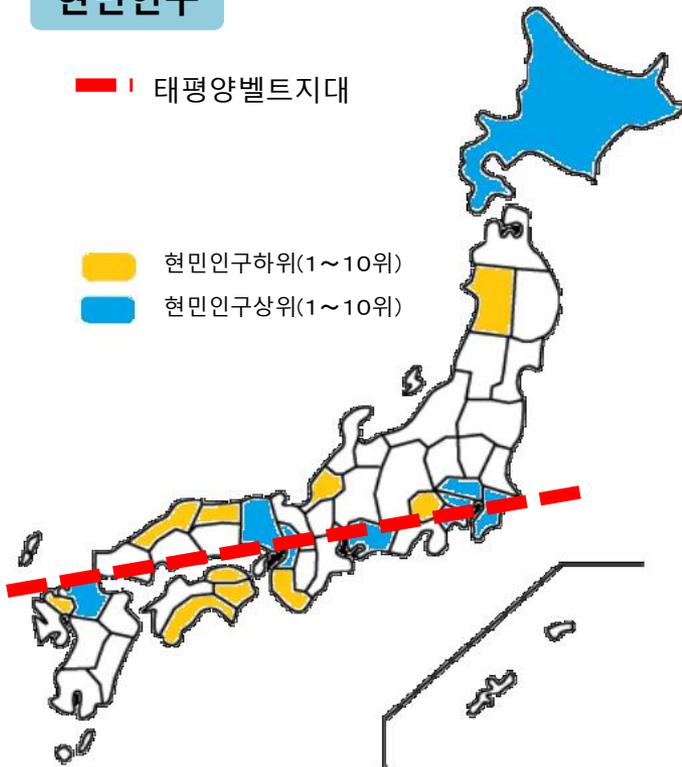
태평양쪽과 서일본 연안부의 격차

현민인구

— 태평양벨트지대

현민인구하위(1~10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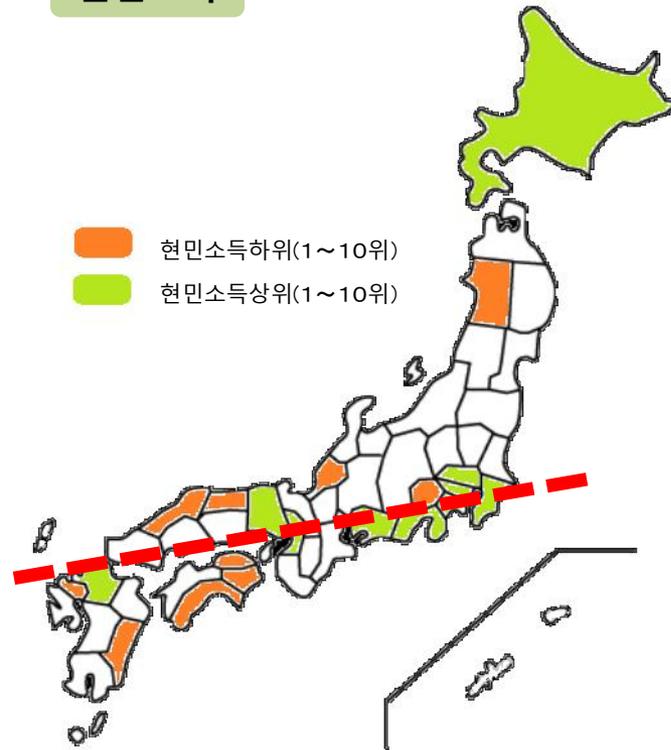
현민인구상위(1~10위)



현민소득

현민소득하위(1~10위)

현민소득상위(1~10위)



출처: 현민인구 총무성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현민소득 내각부 2013년 현민소득계산

대책은 무엇인가?

1. 출생률 향상대책
 2. 인력부족대책
 3. 격차시정과 지역재생
 4. 지방자치단체개혁
 5. 상주인구를 보충하는 교류인구 증가 대책
- 본 강연에서는 3, 4, 5를 중심으로 논의

지방 재생

지방이 지닌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



지방창생

지역재생제도

주요지원조치메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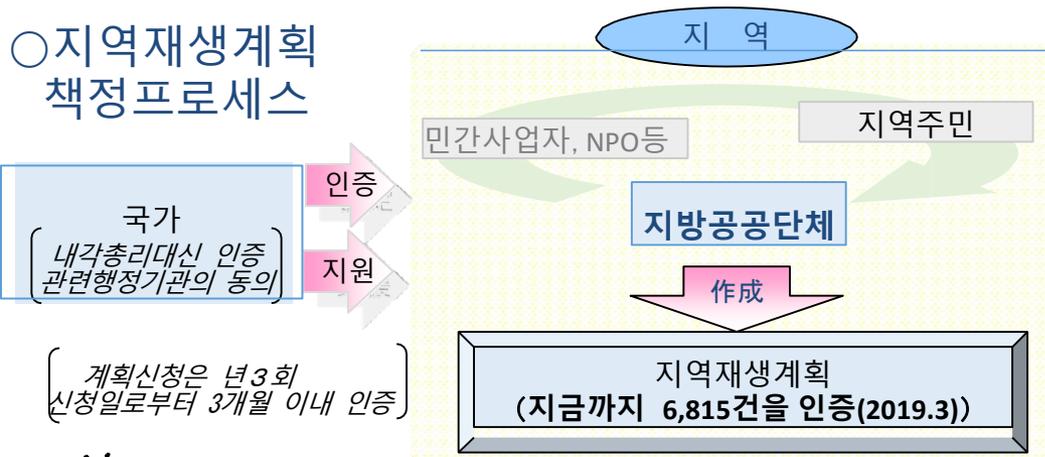
■ 지역재생법에 의거한 지원조치 (※는 2018년 개정으로 창설·확충)

- ① 지방창업 추진교부금
- ② 지방창업정비 추진교부금 (도로·하수 처리 시설·항구)
- ③ 기업판 후루사토납세(고향세)
- ④ 지역재생 지원이자보급금
- ⑤ 기업의 지방거점강화 촉진에 관한 과세 특례 등 ※
(지방활력 향상지역 등 특정업무 시설정비계획)
- ⑥ 지역관리활동에 따른 부담금 징수·교부
(지역재생 영역관리 부담금제도) ※
- ⑦ 상가활성화 촉진사업에 관한 절차·자금조례특례 등 ※
- ⑧ '작은 거점'형성에 관한 절차·과세 특례 ※
(지역재생 토지이용계획)
- ⑨ '생애 활약 마을 (일본판 CCRC)' 형성에 관한 절차 특례
- ⑩ 농림수산업진흥·6차 산업화의 시설 정비에 따른 농지 전용 허가 특례 (지역농림수산업 진흥시설정비계획)
- ⑪ 특정정책과제 해결에 기여하는 지방채 특례
- ⑫ 보조금 등 교부재산의 목적 외 사용에 관한 승인 특례

○ 지역재생법 (2015년 법률 제24호)

- 지방 공공 단체가 작성하는 **지역재생계획**을 총리가 인증, 인증 계획에 따른 조치를 통해 자주적·자립적인 지역 활력 재생에 관한 대응을 지원
- 지역재생의 시책 '취업기회창출', '경제기반강화', '생활환경정비'가 3 가지 핵심
- 지역재생법은 각 부처의 횡단적이고·종합적인 시책을 싣는 공통 플랫폼으로 기능
- 계획 인증은 지역재생기본방침 (각의결정)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

○ 지역재생계획 책정프로세스



〔 계획신청은 년3회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인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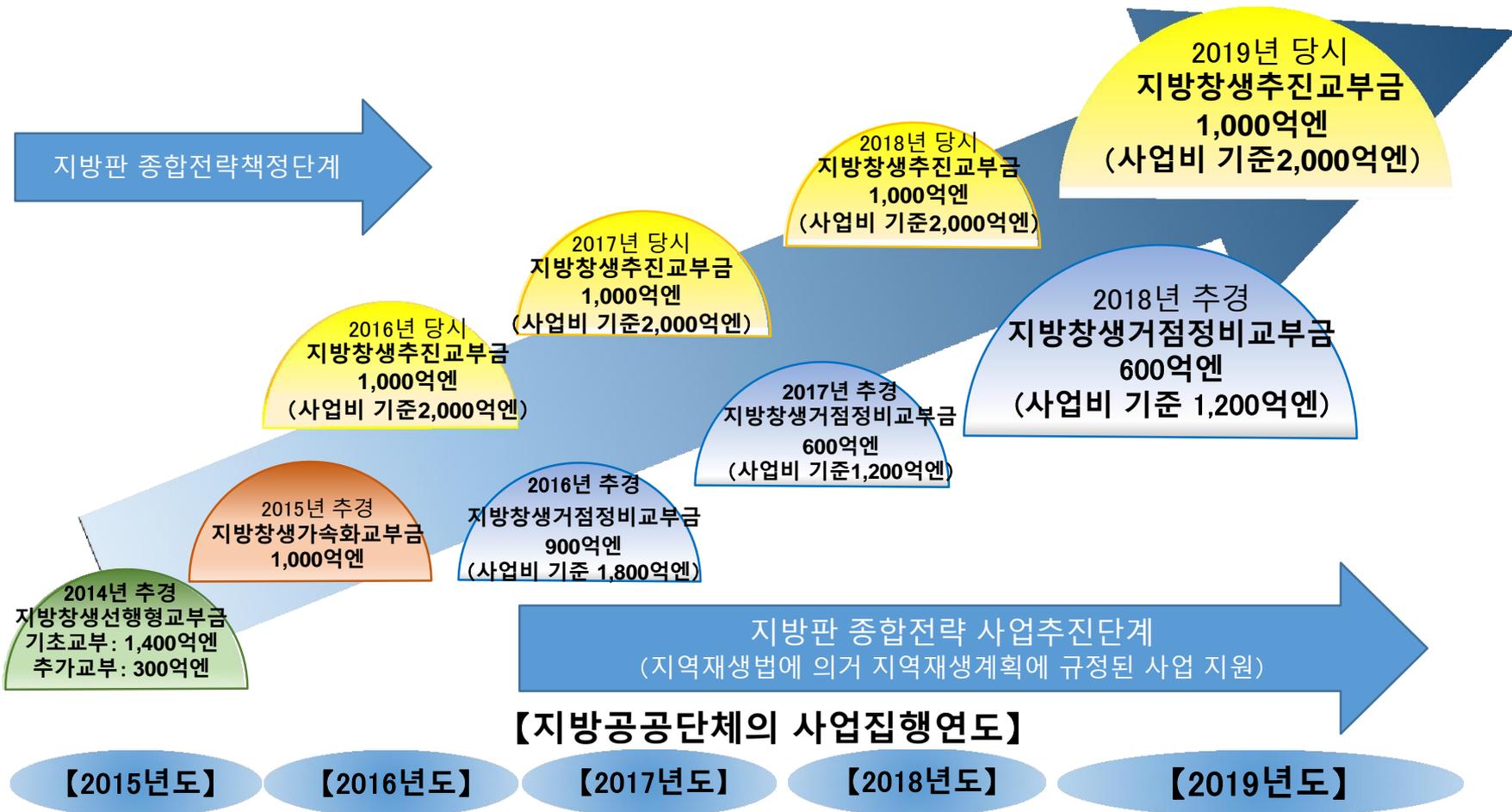


- 2005년 법 제정 이후 7차례의 법 개정 ('07,'08,'12, '14, '15, '16, '18)에 의해 지원조치메뉴를 내실화
- 특히 2014년부터 지역창생의 흐름에 호응하여 지원 조치 메뉴의 강화가 가속화
- 지역창업 전체의 방향성을 정하는 '마을·사람·일 창업법' (2014년 법률 제 136 호)와 개별 지역의 구체적인 지원 조치를 제공하는 '지역재생법'이 양축이 되어 지방창생을 추진

- 열심히 하는 지방을 응원하는 교부금을
창설

지방창생관련 교부금

- 지자체의 **자주적·주체적** 대응으로 **선도적**인 것을 지원
- KPI의 설정과 PDCA사이클**을 도입하여 종례의 ‘부처간(종적)’ 사업을 뛰어 넘은 대응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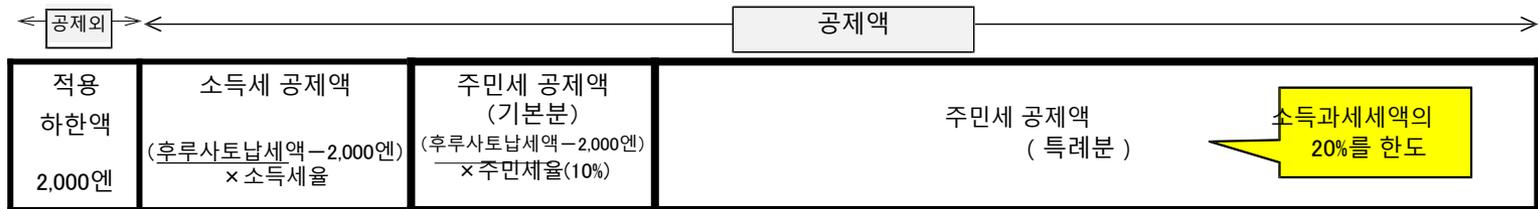


- 도시에서 지방으로 기여에 따라 세원 이양

후루사토 납세(고향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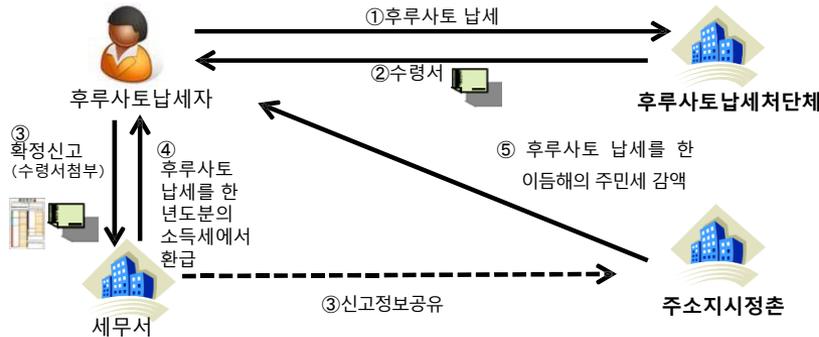
제도 개요

- 도도부현·시구정촌에 후루사토납세(기부)를 하면 납세(기부)액 중 2,000엔을 넘는 부분에 대해 일정 상한까지 원칙적으로 소득세·개인주민세의 전액이 공제(예: 연수입 700만엔의 급여소득자(무자녀)이 30,000엔의 후루사토납세를하면 2,000엔을 제외한 28,000 엔이 공제)



-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후루사토 납세를 한 이듬해에 확정 신고를 할 필요가 있음(원칙). 확정 신고가 필요없는 급여소득자 등에 대해 후루사토 납세처가 5단체 이내 인 경우에 한하여 후루사토 납세처 단체에 신청함으로써 확정 신고를 받을 필요 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 특례(후루사토 납세 원스톱 특례제도)을 창설.
- (2015년 4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지는 후루사토 납세에 대해 적용)
- 자신이 태어난 고향이나 응원하고 싶은 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도 대상.

절차(원칙)



※ 확정 신고가 필요없는 급여소득자 등에 대해 후루사토 납세처가 5단체 이내 인 경우에 한하여 후루사토 납세처 단체에 신청함으로써 확정신고를 하지 않고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 특례(후루사토 납세 원스톱 특례제도)를 창설(2015년 4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지는 기부에 대해 적용)

도입이후의 실적

	명수	기부금액	세액공제액
2009년도 (후루사토 납세 도입)	3만명	73억엔	19억엔
2010년도	3만명	66억엔	18억엔
2011년도	3만명	67억엔	20억엔
2012년도	74만명	649억엔	210억엔
2013년도	11만명	130억엔	45억엔
2014년도	13만명	142억엔	61억엔
합계	108만명	1,126억엔	373억엔

지방창생응원세제 (기업판 후루사토납세)

※ 2020년도 세제 개정 요청으로 적용기한의 5년 연장과 세액공제비율의 인상(30%→60%)등을 요망중

뜻 있는 기업이 지방창생을 응원하는 세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특례조치)

⇒ 지방공공단체가 행하는 지방창생 대응에 대한 기업의 기부에 대해 **세액공제**의 우대조치 실시

제도 포인트

- 기업이 기부하기 쉽도록
 - **세부담 경감 인센티브를 2배로**
 - **기부액의 하한은 10만엔** 으로 낮게 설정
- 기부기업에 **경제적 대가는 금지**
- **기부액은 사업비의 범위내**로 할 필요가 있음

지방공공단체가 설치한 **기금 적립**에 기부금을 총당함에 따라 **복수년도간 사업비와 기부액의 조정이 가능** [2019년~]

예) 100만엔을 기부하면 법인관계세 중 **약60만엔**의 세금을 경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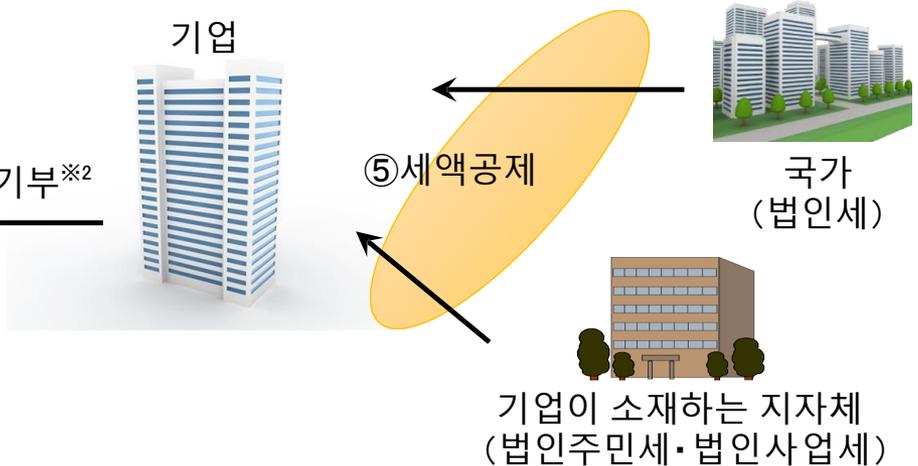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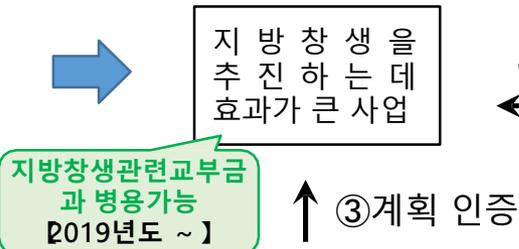


제도 활용의 흐름

- ① 지방공공단체가 지방판 종합전략
- ② 지방공공단체^{※1}가 재정 지역재생계획을 작성

○○시 종합전략

- ○○사업
- △△사업
- ◇◇사업



※1 비교부 단체인 도쿄도, 비교부 단체로 3대도시권의 기성시가지 등에 소재한 시정촌은 대상 외
 ※2 본사가 소재하는 지방공공단체에 대한 기부는 대상 외

인증실적 (2019년도 제2회 인증 후) 644사업 총사업비 1,333억엔 40도부현 374시정촌
 연 3회 (2018년도는 7월, 11월, 3월) 인증

- 또한 적극적인 지방 거주를 촉진

지방창생추진교부금에 의한 이주·창업·취업지원 ~ 두근두근 지방생활실현정책 패키지 ~

○ 과도한 도교권으로의 일극 집중의 시정 및 지방 인력 부족 대책을 위해 지방창생 추진교부금을 활용 한 UIJ턴에 의한 창업·취업자 창출 등을 도모

	이주	비이주
취업	<p>이주를 후원하기 위해 최대100만엔 지원 (정부 50만엔, 도도부현 25만엔, 시정촌 25만엔) 지원이주자 : ①도교23구의 거주자 혹은 ②도교권※1 (조건불리지역※2을 제외) 거주로 도교23구 통근자 취업처 : 지방공공단체가 매칭지원을 대상 ※3으로한 중소기업 등 전입지 : 도교권※1 이외의 도부현 및 도교권※1 내의 조건불리지역※2</p>	<p>현재 미취업중인 여성·고령자 등의 신규취업을 지원하는 도도부현사업을 지원 지원사업 : 도도부현의 실정에 따라 지원 대상자의 발굴 (대상자 발견, 취업의욕 환기)중소기업 등의 작업 환경 개선 지원, 매칭 등 일련의 대응을 민관이 연계된 플랫폼을 형성시켜 일체적이고 포괄적으로 실시하는 사업</p>
창업	<p>↓</p> <p>'이주' 혹은 '창업'의 경우 최대 300만엔 (국비 150만엔) 지원</p>	<p>창업을 후원하기 위해 최대200만엔 지원 (정부 100만엔, 도도부현 100만엔) 지원대상자 : 지역과제에 대해 '사회성', '사업성', '필요성'의 관점으로 대응하는 사회적 사업자 창업지 : 도교권※1 이외의 도부현 및 도교권※1 내의 조건불리지역※2</p>

※ 1 도교도, 사이타마 현, 치바현과 가나가와현
 ※ 2 과소지역 자립 촉진 특별조치법, 산촌진흥법, 이도진흥법, 반도진흥법 및 오가사와라제도 진흥개발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하는 조건불리지역이 있는 시정촌 (정령지정도시를 제외)
 ※ 3 도도부현에 의한 이주희망자 등과 중소기업 등의 매칭을 지원하는 체제 구축을 별도 지원

*** 상기 스킴과 더불어 관계 성청과 연계하여 이하 지원을 실시**

- 이주 지원과 연계하여 이민자를 채용한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그 채용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조성 [후생노동성]
- 이주 지원과 연계하여 이민자가 주택의 건설·구입을 할 경우 (독)주택 금융지원기구가 제공하는 주택론의 금리 인하 [국토교통성]
- 창업 지원과 연계하여 시설 자금 및 운전 자금을 대해 일본 정책 금융 공고의 용자에 의한 지원 [중소기업청]

출처: 내각부 자료

- 정부기관도 이전
- 기업의 지방 이전시, 특례세제 창설

정부관련기관의 이전

이번 대응 취지

도쿄일극집중시정의 시점에서, 도부현부터의 제안을 토대로 이하 기본적 시점에서 검토

- ① 지방창생의 시점에서 '일'과 '사람'의 선순환으로 이어질지
- ② 전국을 대상으로 한 국가기관으로서의 기능의 유지·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가
- ③ 전국에서 '왜 그곳인지'에 대해 이전처를 포함하여 이해를 얻을 수 있는지
- ④ 현지 민관 협력·수용 체제는 어떠한가 (그로 인하여 국가의 새로운 재정 부담은 최대한 억제, 확충 방향이 나와있는 것 이외의 조직·인원의 비대화 억제)

1 연구기관·연수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해

(1) 기본방침

지역의 연구 기관 등과 연계 함으로써 이전에 의해 지역창생에 도움이 되고 국가기관으로서 기능의 유지·향상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을 이전. ※ 대상 23기관 50건 (별지 1)

(2) 향후 추진방식

- ① 지방창생 추진교부금 등의 운용에 있어서는 금번 이전 대응을 지역혁신의 선순환 등에 연결할 수 있도록 배려
- ② 각각의 대응에 대해 2016년도에 구체적인 전개를 명확히 한 5~10년 정도의 연차 계획을 관계자 간 (국가·지방의 산학관)에 공동으로 작성, 정부에서 팔로우업 '향후 기관 신설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도쿄 권외에 입지' 취지의 각의결정과 함께 정부에서 팔로우업

2 중앙성청의 지방이전에 대해

(1) 기본방침

국가 기관으로서의 기능 유지·향상의 시점에서
① '위기관리업무', '외교관련업무', '국회대응업무'에 유의하면서

② '시책·사업의 집행 업무'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인 '정책기획·입안업무'에 대해 가능한 한 현장에 가까운 곳에서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관점에서 검토하여 7개의국·청(局庁)에 대해 정리 (별지 2). (기능 확보 등에 대해 ICT 활용 등에 의한 검증을 실시하면서 검토)

(2) 국가 기관으로서의 기능 발휘 검증(사회실험)

지역창생의 시점뿐만 아니라 국가 조직의 방향성이나 행정개혁, 일하는 방식 개혁의 시점에서 국가기관의 업무에 대해, ICT의 활용 등에 의한 실증 실험에 정부 전체가 대응. 이번 대응을 선행적 실시로 규정하고 실시 상황을 지켜보면서 각 부처도 참여하여 시행.

문화청 교토이전

- 2015년 8월말 42 도부현으로부터 69개 기관 유치 제안
- 중앙성청의 지방이전 기본방침 결정 (2016.3.22 창생본부 결정)
- 2017년 4월 문화청 지역문화 창생본부 설치
- 2018년 7월 조직 체제의 큰 틀 · 이전 장소 · 이전시기 등이 결정
 - 이전 장소 : 교토 부 경찰 본부 본관
 - 이전시기 : 늦어도 2021년 안에 본격 이전을 목표
 - 본청이 교토에 이전하여 장관 · 차장을 비롯한 약 70%의 직원 (250명 정도)이 배치 ⇒ 교토부에서 신청사 정비에 착수

착실하게 추진되는 문화청의 기능강화

- ① 문화예술기본법 시행 (2017년 6월 23일)
 - 음식 문화의 진흥을 비롯한 문화 정책의 대상 확대
- ② 문부과학성 설치법 개정안의 시행 (2018년 10월 1일)
 - 문부과학성 및 문화청의 임무로서 문화 진흥과 더불어 문화에 관한 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규정

예산 : 1,082억엔 (2018년도) → 1,167억엔 (2019년도)
 정원 : 231명 → 253명 (2018년 10월 ~)

문화정책의 대상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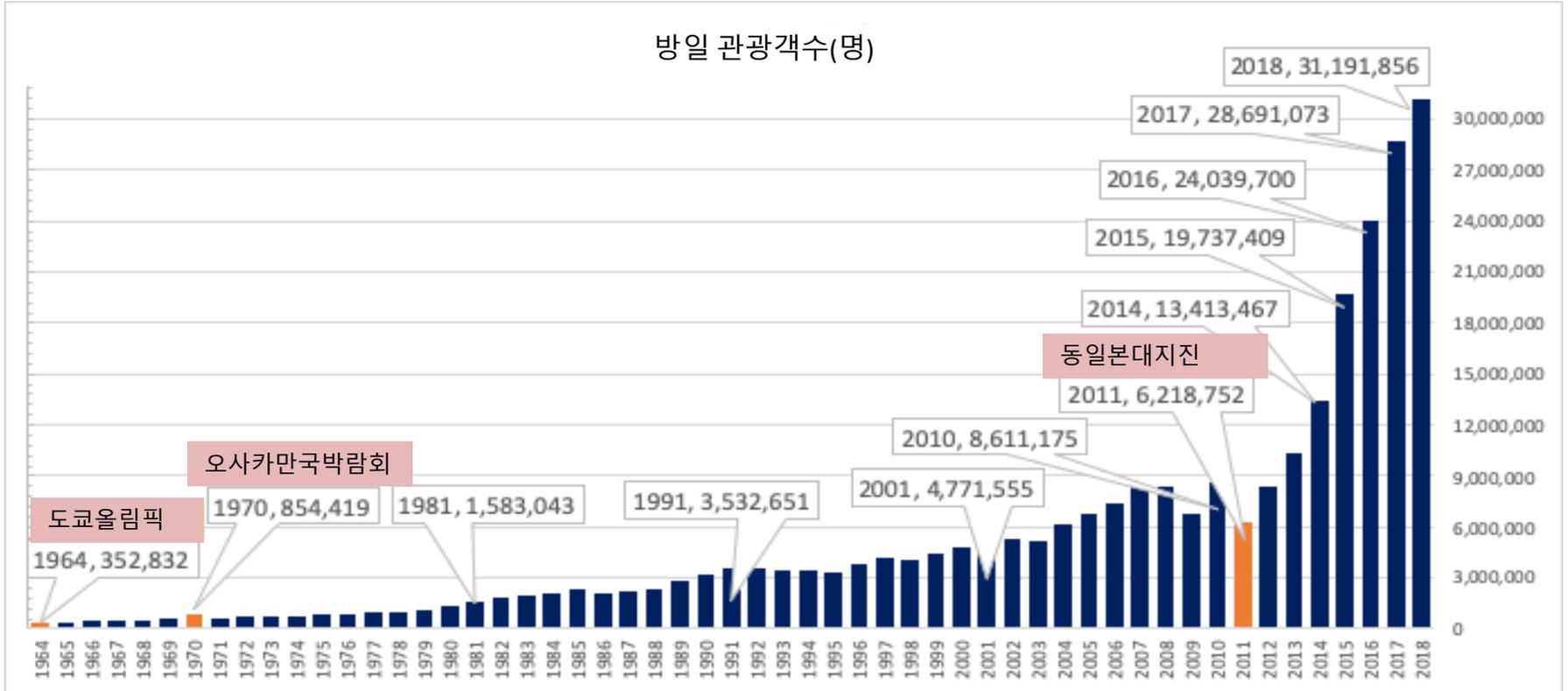


- 지방창생의 거점으로 지방대학을 진흥
- 동시에 도교 23구의 대학 정원을 억제

- 이러한 가운데 특히 지방은 관광 등에서 꽤 활기를 되찾음

년도별 방일관광객수

방일 관광객수(명)



| 년도 /방일외국인관광객수(명) |
|------------------|------------------|------------------|------------------|------------------|------------------|
| 1964 352,832 | 1974 764,246 | 1984 2,110,346 | 1994 3,468,055 | 2004 6,137,905 | 2014 13,413,467 |
| 1965 366,649 | 1975 811,672 | 1985 2,327,047 | 1995 3,345,274 | 2005 6,727,926 | 2015 19,737,409 |
| 1966 432,937 | 1976 914,772 | 1986 2,061,526 | 1996 3,837,113 | 2006 7,334,077 | 2016 24,039,700 |
| 1967 476,771 | 1977 1,028,140 | 1987 2,154,864 | 1997 4,218,208 | 2007 8,346,969 | 2017 28,691,073 |
| 1968 519,004 | 1978 1,038,875 | 1988 2,355,412 | 1998 4,106,057 | 2008 8,350,835 | 2018 31,191,856 |
| 1969 608,744 | 1979 1,112,606 | 1989 2,835,064 | 1999 4,437,863 | 2009 6,789,658 | |
| 1970 854,419 | 1980 1,316,632 | 1990 3,235,860 | 2000 4,757,146 | 2010 8,611,175 | |
| 1971 660,715 | 1981 1,583,043 | 1991 3,532,651 | 2001 4,771,555 | 2011 6,218,752 | |
| 1972 723,744 | 1982 1,793,164 | 1992 3,581,540 | 2002 5,238,963 | 2012 8,358,105 | |
| 1973 784,691 | 1983 1,968,461 | 1993 3,410,447 | 2003 5,211,725 | 2013 10,363,904 | |

교토부, 후쿠치야마시,
마이즈루시, 아야베시,
미야즈시, 교단고시, 이네초,
오사노초

교토부 북부지역연계도시권 광역관광추진사업 (바다의 교토 DMO 지역활성화 추진)

사업 배경·개요

- 서일본 연안부에 위치한 교토부 북부 지역의 7개 시정(市町)은 과소·고령화가 진전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광역 연계형 관광 지역 만들기를 연계하여 실시해 왔다. 한편, 프로모션 등은 각 시정촌이 각각 실시하고, 보다 통일된 대응이 과제가 되고있다.
 - 이에 북부 7시정의 관광협회를 수평적으로 통합하여, 지역 만들기의 추진 조직 및 지역 상사인 '바다의 교토 DMO'를 설립, 사업을 일원화하여 종합적인 실시 체제를 정비하고, 통일된 관광 전략 하에 교토 탄고 철도의 특급 차량 '바다의 교토 상징 열차'에 의한 지역으로의 관광객 유치 ※와 각 시정(市町)에 의한 관광 자원 연마하고, 특산품과 착지형 여행 상품 개발 등을 조합하여 '관광 경영'의 관점에서 지역 만들기를 통해 관광 관련 사업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전체에 선순환을 이끌어 간다.
- ※ 지금까지는 교토 탄고 철도(사철)만 운행했으나, 교토역(JR 관내)까지 연장하여 관광객유치를 도모한다.

중요실적평가지표(KPI) 등

- 【2016. 3】유치관광객수 : 9,366천명
관광소비액 : 229억엔
착지형 여행상품매출액 : 10,000천엔
- 【2020. 3】유치관광객수 : 9,773천명
관광소비액 : 236억엔
착지형 여행상품매출액 : 33,750천엔



선구적 대응 (관민협동, 정책간 연계, 지역간 연계, 자립성)

- 【관민협동】
 - 교토부와 7개 시정은 '바다의 교토 DMO'를 설립하고 출범기의 인적 지원 등을 실시하고, 마스터 플랜 등 민간 사업자 등에게 대응 방향성을 제시한다. 또한 민간 사업자간의 협의의 장을 마련한다.
 - 철도, 관광 관련 사업자는 '바다의 교토 상징 열차'의 연장(JR과 사철의 연계)을 비롯해 즐길 수 있는 여행을 제공하고 서비스 향상을 위한 평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브랜드화의 촉진을 도모한다.
- 【정책간 연계】
 - DMO의 설립을 통해 종합적인 관점을 지닌 관광 진흥을 전개 할 수 있게 되고, 지역 자원을 활용한 상품 개발 등을 통한 산업 진흥, 고용 창출이 도모되어 인구 유출 감소(과소화 대책)을 촉진 된다.
 - 또한 민간 사업자에 의한 평가 제도를 통해 서비스 수준의 고품질화를 비롯하여 산업 경쟁력의 강화를 도모 할 수 있다.
- 【지역간 연계】
 - '바다의 교토 DMO'로 지역의 관광협회를 수평 통합함으로써 통일된 프로모션의 실시 및 각 관광 안내소에서 지역 전역에 관한 관광 안내와 숙박 알선, 상품의 판매를 가능하게 함.
- 【자립성】
 - DMO에 의한 마케팅 조사에 의거하여 관광 상품 판매, 신용 평가 제도의 도입에 따른 신용 등급료 수입, 광고료 수입, 숙박 시설의 알선 수수료 등으로 자기 자립을 목표로 한다.

참고 포인트

- ① 교토부 북부에리어의 광역 DMO로서 관광협회의 수평적인 통합과 철도간 연계 등 지역이 일체적 종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를 형성하고 있음.
- ② 행정, 민간, 관광 관련 업체가 각각 강점을 살려 역할 분담을 하면서 협동으로 사업에 임하고 있음.
- ③ 민간 사업자의 자주적 대응인 신용 평가 제도에 의한 수입 등 자립을 위한 재원이 구체적이고 확실성이 높으며 자립을 위한 이정표가 나타나고 있음.

지방공공단체 개혁

지방의 시정촌은 향후 존속의 방향을
생각해야할 상황



그렇다면 2040년의 지방자치단체를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2040년경 지방지자체가 맞이하는 위기

<2018년 4월 지자체 전략 2040 구상연구회 제1차 보고 >

● 2040년경 다가오는 일본의 내정상의 위기

1 청년들을 흡수하면서 늙어가는 도쿄권과 이들을 잃어가는 지방권

- ○ 입원 개호에 대한 수요 증가율이 가장 큰 도쿄권에 의료 개호 인력이 지방에서 유출될 우려
 - 도쿄권에 육아의 부담감으로 이어지는 구조적인 요인 → 저출산에 제동이 걸리지 않을 우려
 - 지방권에 도쿄로부터 서비스 이입에 따른 자금 유출이 상시화
 - 중산간 지역 등에서 취약 기능의 유지 농경지·산림 관리가 더 어려워짐

2 표준적인 인생 설계의 소멸에 의한 고용·교육 기능부전

- ○ 기존의 세대주 고용 모델이 더 이상 표준이 아님
 - 취업 빙하기 세대에 경제적으로 자립 할 수 없는 사람이 그대로 늙을 경우 사회 리스크가 될 수있음 청년 무직자, 은둔형 외톨이
 - 청년의 노동력이 감소하여 국민의 틀을 넘은 인재 확보가 필요
 - 교육의 질 저하 → 기술 입국으로 국제 경쟁에서 뒤처질 우려

3 스폰지화되는 도시와 노후화되는 인프라

- ○ 많은 도시에서 '도시의 스폰지화'가 현격해 짐(방치하면 도시 쇠퇴가 가속)
 - 도쿄권으로의 과도한 집중은 수도 직하 지진 발생시 리스크로
 - 고도경제성장기 이후에 정비된 인프라가 노후화되어 갱신투자가 증가

지방의 위기

1. 도교는 고령화, 지방권은 사람이 없어짐
- 2 비정규직, 청년 무직자, 은둔형 외톨이 등
경력을 쌓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인력의 질이 저하됨
- 3 공터, 빈집이 눈에 띄는 도시는
도시성장기에 조성된 인프라의 수명이 다가옴

지방자치단체들은 어떻게 해야하는가?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기본 개념

<2018년 7월 지자체 전략 2040 구상연구회 제2차 보고>

● 인구축소시대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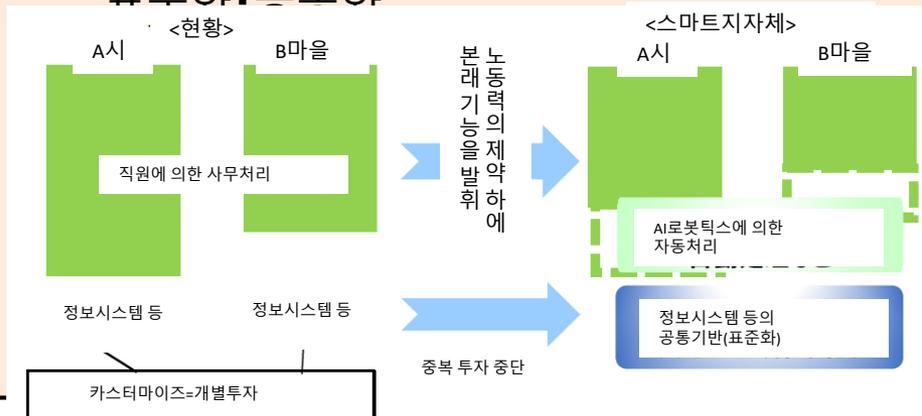
1 스마트 지자체로의 전환

○ 파괴적 기술(AI·로봇틱스 등)을 빠짐없이 활용하는 스마트 지자체

- 종전의 직원가운데 반이라도 지자체가 담당해야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로
- AI등을 적용할 수 있는 사무작업은 모두 AI등으로 자동 처리하는 스마트 지자체로 전화

○ 지자체 행정의 표준화·공통화

- 표준화된 공통기반을 활용한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 체제로
- 중복 투자를 막는 체제. 정보 시스템 등의 표준화·공통화



2 공공사(公共私)에 의한 생활 유지

○ 플랫폼·빌더로의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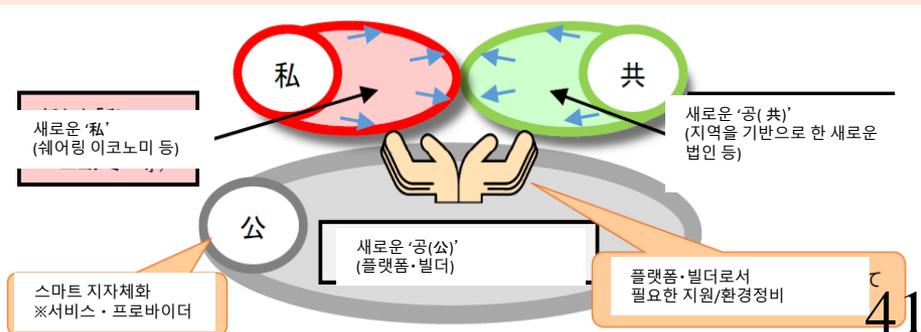
- 새로운 공공사간의 협력관계를 구축
- 필요한 인재·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公)에 의한 지원과 환경정비

○ 새로운 공공사의 협력관계 구축

- 전국 일률적인 규제를 재검토하여 셰어링 이코노미의 환경을 정비
- 조직적인 중개기능

○ 생활을 지탱하는 인력 확보

- 생활을 지탱하기 위해 일할 수 있는 새로운 체제
- 법인화에 의한 지연(地緣)조직의 기반강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기본 개념 2/2

< 2018년 7월 지자체 전략 2040 구상연구회 제2차 보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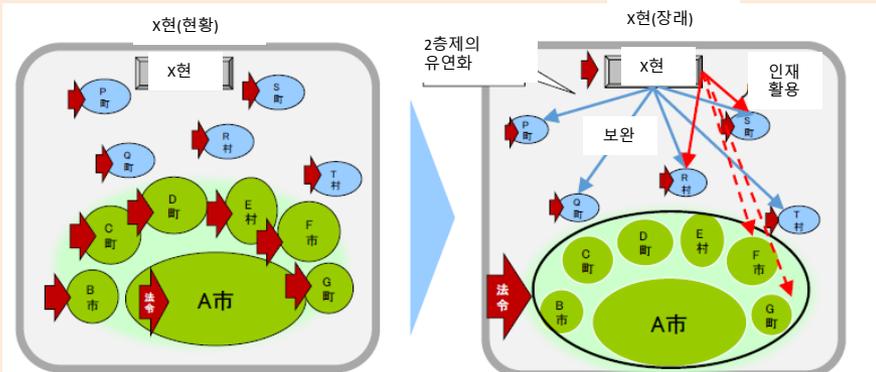
3 권역 매니지먼트와 2층제의 유연화

○ 지방권의 권역 매니지먼트

- 행정의 풀셋주의에서 탈피. 권역단위에서 행정을 스탠다드로
- 광역적인 과제에 대한 대응력 (권역거버넌스)를 높이는 체제
- 각각의 제도에 권역을 빌드인

○ 2층제의 유연화

- 도도부현·시정촌의 2층제를 유연화
- 도도부현이 시정촌을 보완·지원
- 도도부현·시정촌의 구분을 넘어 전문직 직원을 유연하게 활용



도시권에서 유지할 수 있는 서비스와 시설 전체량은 축소.
권역단위에서의 행정이 필요
개개의 제도에 권역을 빌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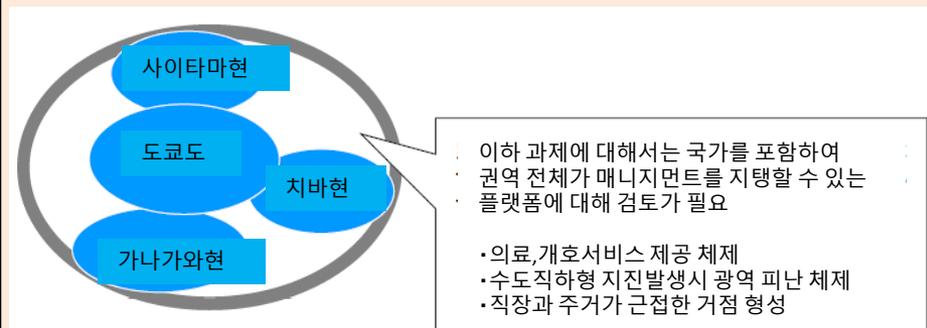
4 도쿄권의 플랫폼

○ 3대도시권의 최적의 매니지먼트 기법

- 광역연계가 진전되지 않고 있는 도쿄권에서 주변의 시정촌과 연계·스마트 지자체로 전환
- 지역별로 최적의 매니지먼트 방법의 틀을 고려

○ 도쿄권의 플랫폼

- 권역전체가 부담을 나눠갖고 이해조정을 수반하는 합의형성을 국가도 포함하여 권역 전체가 매니지먼트를 지탱할 수 있는 플랫폼



이와 과제에 대해서는 국가를 포함하여 권역 전체가 매니지먼트를 지탱할 수 있는 플랫폼에 대해 검토가 필요

- 의료, 개호서비스 제공 체제
- 수도권하형 지진발생시 광역 피난 체제
- 직장과 주거가 근접한 거점 형성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지자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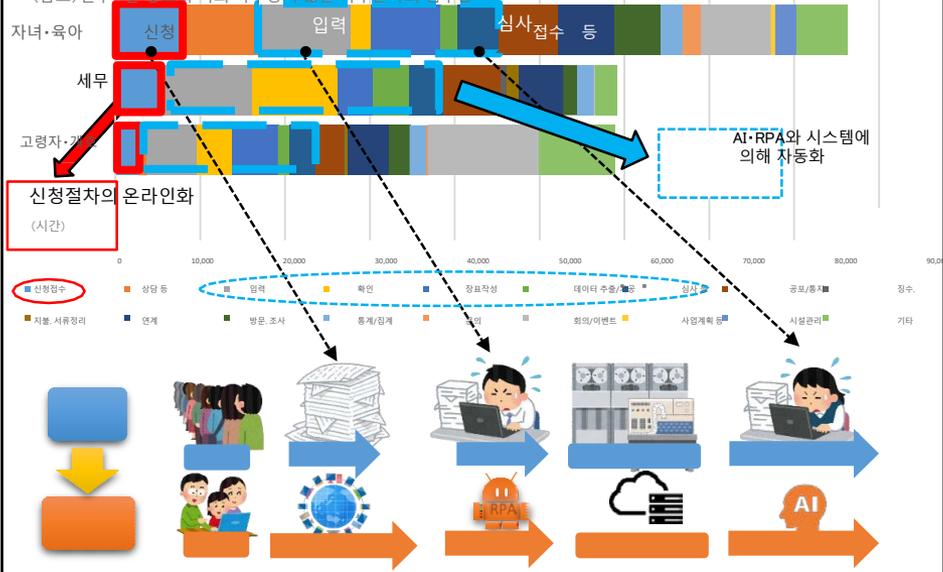
1. 스마트화 IOT AI 로봇
Society 5.0 사회의 실현
2. 지자체와 시민의 공동,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
3. 새로운 광역행정 확립과 유연한 행정조직의 운영

Society5.0시대의 지방'으로 ②

스마트 지자체의 추진

- 직원 업무량이 많은 불륨존에 대해 AI·RPA등의 ICT 활용을 추진함과 동시에 시스템 표준화·공동화(지자체 클라우드), 절차행정의 온라인화를 통해 업무효율화를 추진

(참고) 인구 7만 정도의 시의 사무량이 많은 사무분야의 업무량



철저한 마이넘버제도의 활용

- 마이 넘버에 의한 정보 연계로 행정 제출 서류를 생략할 수 있는 절차를 대폭 확충

· 2017.11 ~ 약 850절차 ⇒ 2018.10 ~ 약 1,200절차
 ⇒ 향후·연금 관련 약 1,000절차를 순차적으로 운용개시

- 호적 관련 정보를 정보 연계 대상으로 추가하기 위한 호적법의 일부 개정안을 국회 제출

- 마이 넘버 카드의 건강 보험증으로의 활용, 소비 활성화 방안의 프리미엄 포인트 부여를 고려한 보급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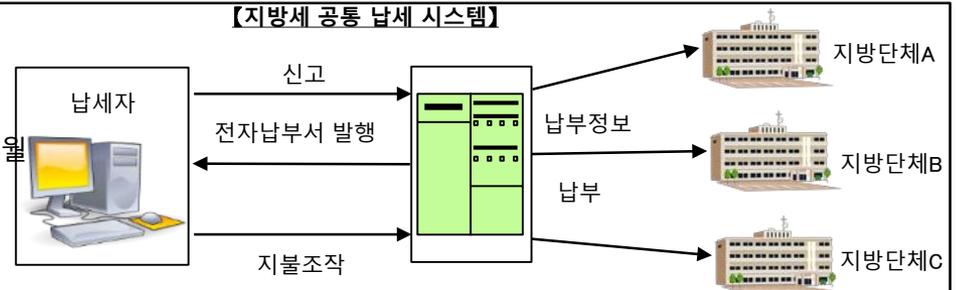
Society5.0시대의 필수 도구

- 마이 넘버 카드·마이 포털을 활용하여 주민 눈높이의 온라인 행정 서비스 제공을 추진
- 전자 신청·전자 본인 확인, 수수료 전자 납부
- 원스톱 서비스 (육아, 간병, 이사)
- 푸시형 서비스

지방세무정차의 디지털화 추진

- 세무서의 편의성 향상과 지자체의 과세사무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방세 공통납세시스템 (eLTAX의 기능 중 하나) 를 원활하게 가동 (본년10월) 시켜, 신고부터 납세까지의 절차를 온라인화
- 향후, 전국 공통의 전자 인프라인 eLTAX 등을 활용하여 지방 세무절차의 디지털화를 추진

[지방세 공통 납세 시스템]



- AI 채팅봇을 도입하여 24시간 언제나 대응할 수 있으며 업무 효율화를 진행할 수 있다.
- LINE과 마을 홈페이지에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의 이주 희망자가 알고 싶을 때 언제든지 와케초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과 제

- '와케마로쿤' 도입전은 다양한 문의에 대해 담당 직원이 직접 응대해 왔다. 담당자가 없을 경우 업무시간 외에 대응이 충분하지 못할 때가 있었다.

대 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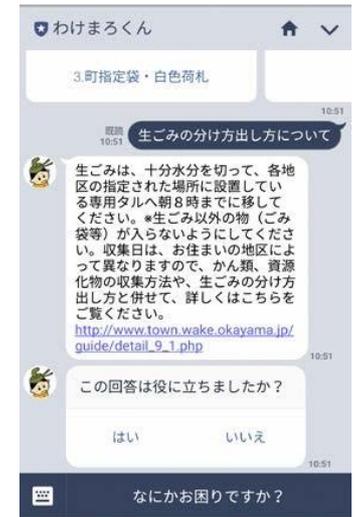
- AI 채팅봇을 자동 대화 프로그램 '와케마로쿤'으로 활용. (종합적인 내용을 답변 할 수 있는 자동 대화 프로그램을 전국 최초로 도입) '와케마로쿤'은 LINE과 마을 홈페이지상에서 작동하는 대화형 서비스로 이용자가 와케초에 대해 질문하면 정보를 자동으로 안내한다.

성 과

- 문의 창구가 담당부서별로 구분되었던 정보를 하나로 정리 할 수 있어 이용자가 정보를 간단하게 입수할 수 있게 됨
- 또한 AI를 인터넷과 연계시킴으로써 업무시간에 구매 받지 않고 문의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점도 기대됨



PC용 Web화면 이미지



LINE용 화면 이미지



와케초 마스코트 캐릭터 '와케마로쿤'

※NICT로부터 도쿄대학이 수탁하여 실증사업을 실시 (연구개발예산 2016년도부터 3년간 총액6,800만엔)

- 지금까지 시내 점검·보수가 필요한 도로 이미지를 시의 전문 직원이 직접 보고 손상을 판정.
- 전문 직원의 손상 판정 결과를 기계 학습시킴으로써 이미지에서 노면의 손상 정도를 시가 자동 분류하는 연구를 실시. 도로 관리의 간소화를 실현.

과 제

- 직원이 매주 1회, 치바시내 약 3,300km 중 약 400km를 약 4명의 직원이 3시간 정도 순찰. (별도 매월 1회, 야간 2명의 직원으로 2시간 정도 실시) 자리로 돌아간 후에는 도로 손상의 발견, 손상 정도의 판정·보수 우선 순위 작업을 약 2시간에 걸쳐 실시.

대 응

〈My City Report〉

※치바레포 : 스마트폰 앱
 시민이 지역의 고민을 투고하여 시민간에 또는 시청과 공유함으로써 효율적·합리적으로 해결하는 시스템

- 기존의 '치바레포' ※에 있던 시민 협동으로 도로 관리뿐만 아니라 차량의 카메라로 촬영한 이미지로 도로 포장의 손상을 기계 학습을 통해 자동 추출하는 기능을 추가
- 차량의 최적자원배분 등 기능을 넣은 'MyCityReport' 를 개발·실증. 전국 지자체로의 전개를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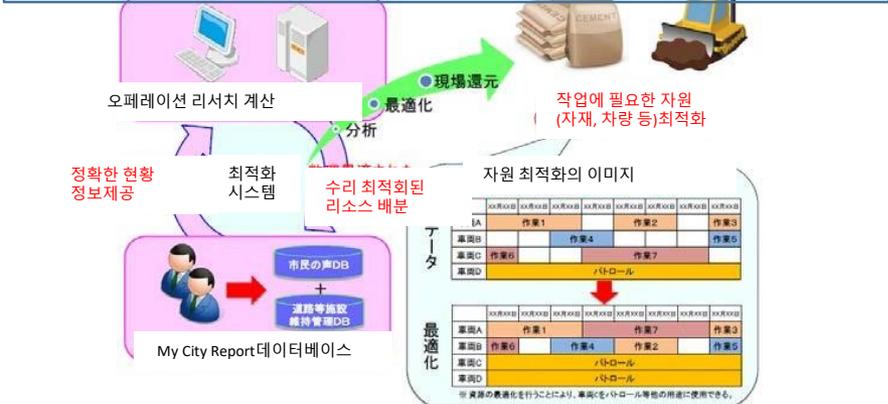
성 과

- 보다 효율적인 도로 관리 및 직원의 업무량 (1회당 20시간 정도 (4명×5시간)) 감축을 기대

【신기능】기계학습에 의한 도로손상의 자동 추출



【신기능】작업에 필요한 자원의 최적량을 시스템에 의해 자동산정



RPA에 의한 지자체 업무 간소화 (구마모토현 우기시)

본격도입

2017년도 업무개혁모델프로젝트 실시단체: 약 1,400만엔
2018년도 일반재원

RPA (Robotic Process Automation) 를 활용하여 2017년도에는 '후루사토 납세' 와 '시간외 신청申 (시간외 근무수당 계산)' 업무에 대해 실증, 2018년도에는 본격 도입하여 RPA에 의한 자동화 범위를 확대

과 제

- '직원 급여' · '회계' 의 경우 담당과가 작성한 엑셀 데이터를 시스템 입력으로 활용
- '후루사토 납세' 의 경우 네트워크 강인화에 의한 데이터 처리에 드는 작업 시간이 증가
- '후기 고령' · '수도' 는 시스템에서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여 수동으로 데이터를 작성



실증실험연구회 모습

대 응

- 직원 급여, 후루사토 납세, 주민 이동, 회계, 후기 고령, 수도 6분야의 작업을 자동화 하여 직원의 업무 작업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표로 !

※시스템 입력과 시스템 출력(데이터 작성)이 기본이나 주민 이동은 직원을 보조 · 지원하는 RPA 구축을 실시

성 과

- 연간1,700시간의 감축 효과를 전망
- 감축한 시간을 기타 업무 시간에 할애함으로써 주민 서비스 향상을 도모
- 입력 실수나 재수정을 막을 수 있으며, 업무개선으로 이어짐

RPA도입에 따른 업무 삭감 (추산)

업무분야	대상사무	전망효과
직원급여	임시·비상근직원급여 업무	394시간/년 감축
후루사토 납세	기부정보취득사무	349시간/년 감축
회계	채권자·구좌등록사무	500시간/년 감축
	물품등록사무	100시간/년 감축
후기고령	후기고령자의료보험료통지발송사무	96시간/년 감축
수도	수도요금독촉장발송사무	240시간/년 감축
주민이동	주민이동신고입력사무	실수와 재수정 감소

- 주민 협동에 의한 지역조직의 재구축

지역운영조직 사례

지역운영조직의 사례 (미에현 나바리시 : 지연법인 니시키오 자치협의회)

- 니시키오 자치협의회는 '자신들의 마을은 스스로 만든다'라는 관점에서 고령자 살롱 사업과 폐지된 버스 노선의 운행 위탁 초등학교 부지를 이용한 버섯 생산·판매 등을 실시
- 2012년 법률상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하고 계속된 활동 기반의 확립을 도모하기 위해, 지연 법인 (인가 지연 단체)를 취득

지역개요

- 인구 약 1,500명
- 면적 11.71km²
- 고령화률 44.8%
- 나라현 우다시에 인접한 농촌주체지역
- 가입률은 90% 이상

대응 내용

- 니시키오 자치협의회는 '자신들의 마을은 스스로 만든다'라는 관점에서 2004년에 지역 주민의 생각과 염원을 반영한 '니시키오 화목 플랜', 2010년 '니시키오 그랜드 디자인 2010'을 책정하고 활력과 윤기있는 마을 만들기, 사람 만들기를 목표로 하고있다.
- 구체적으로는 고령자의 살롱 사업과 재산이 맞지 않아 폐지된 버스 노선의 운행 위탁, 초등학교 부지를 이용한 버섯 생산·판매 실시, 방과후 아이들 교실 등 다양한 사업에 노력하고있다.
- 활동 거점인 '시민 센터'(구 공민관)에 대해 지정 관리 업무를 위탁하고있다.



錦生地区で生産されるキノコ「にしきおっ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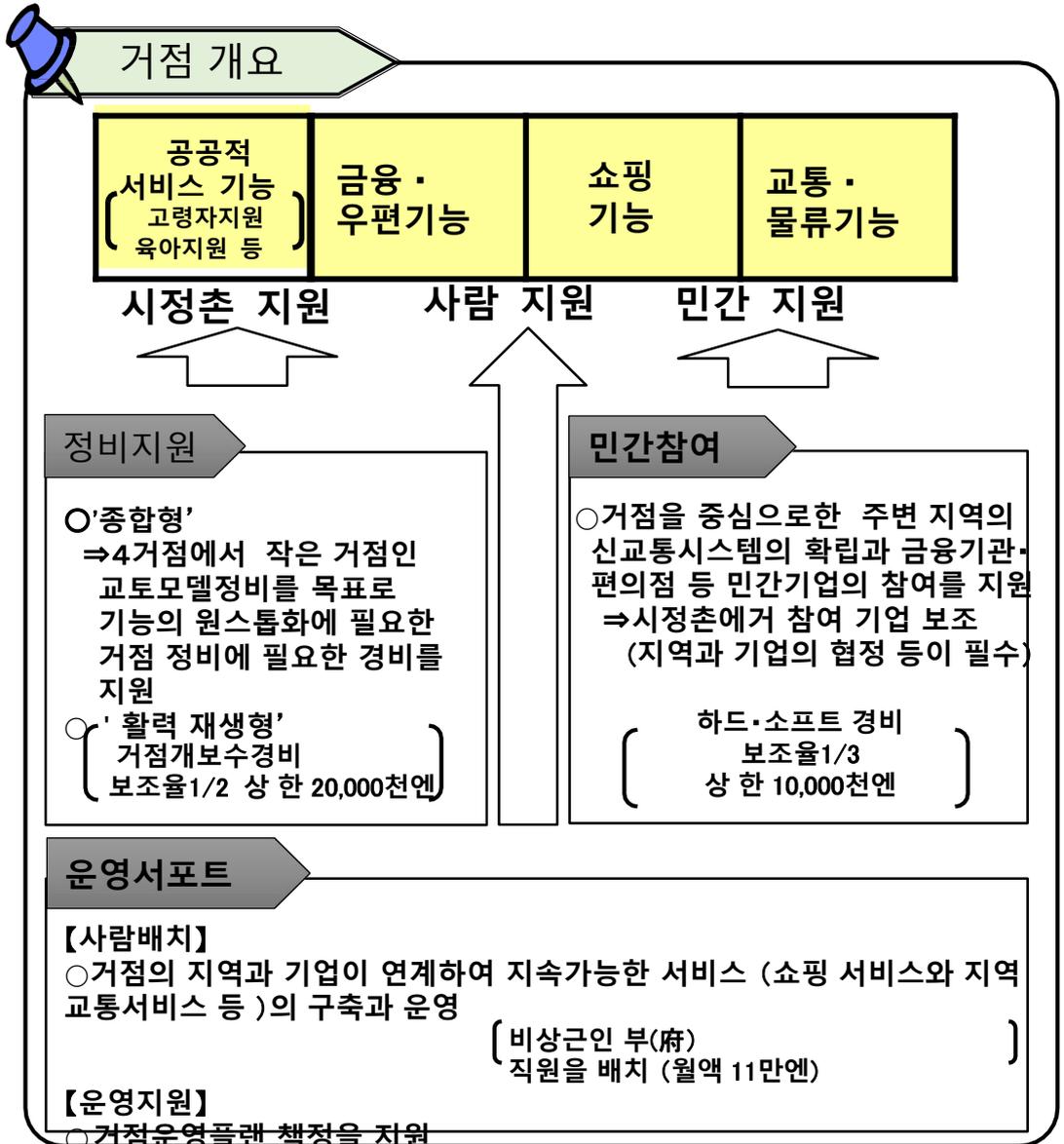
시의 지역 공동체 정책

- 2003년부터 기존 보조금을 폐지하고 사용 용도가 자유로운 교부금 (곰 만들기 지역 교부금) 제도를 창설
- 대체로 초등학교 구를 단위로 한 '지역 만들기 조직'을 설립하고 지역 주민이 교부금을 토대로 자기결정·자기실현을 도모하는 체제를 구축

법인화의 경위 등

- 2012년에는 법률상 책임 소재를 명확히하고 활동 기반의 지속적인 확립을 도모하기 위해, 지연 법인 (인가 지연 단체)로 승인을 받았다.
- 복식부기가 필요한 일반 사단 법인에 비해 회계면에서의 사무 부담이 적고, 시장이 허가권자 등의 이유로 지연 법인 (또는 지연 단체)를 선택한다. 허가를 받을 때 제품 생산에 국채를 취득한다.

공동체·편의점 사업 ~교토판 작은 거점~



① 새로운 광역행정의 확립

연계중추도시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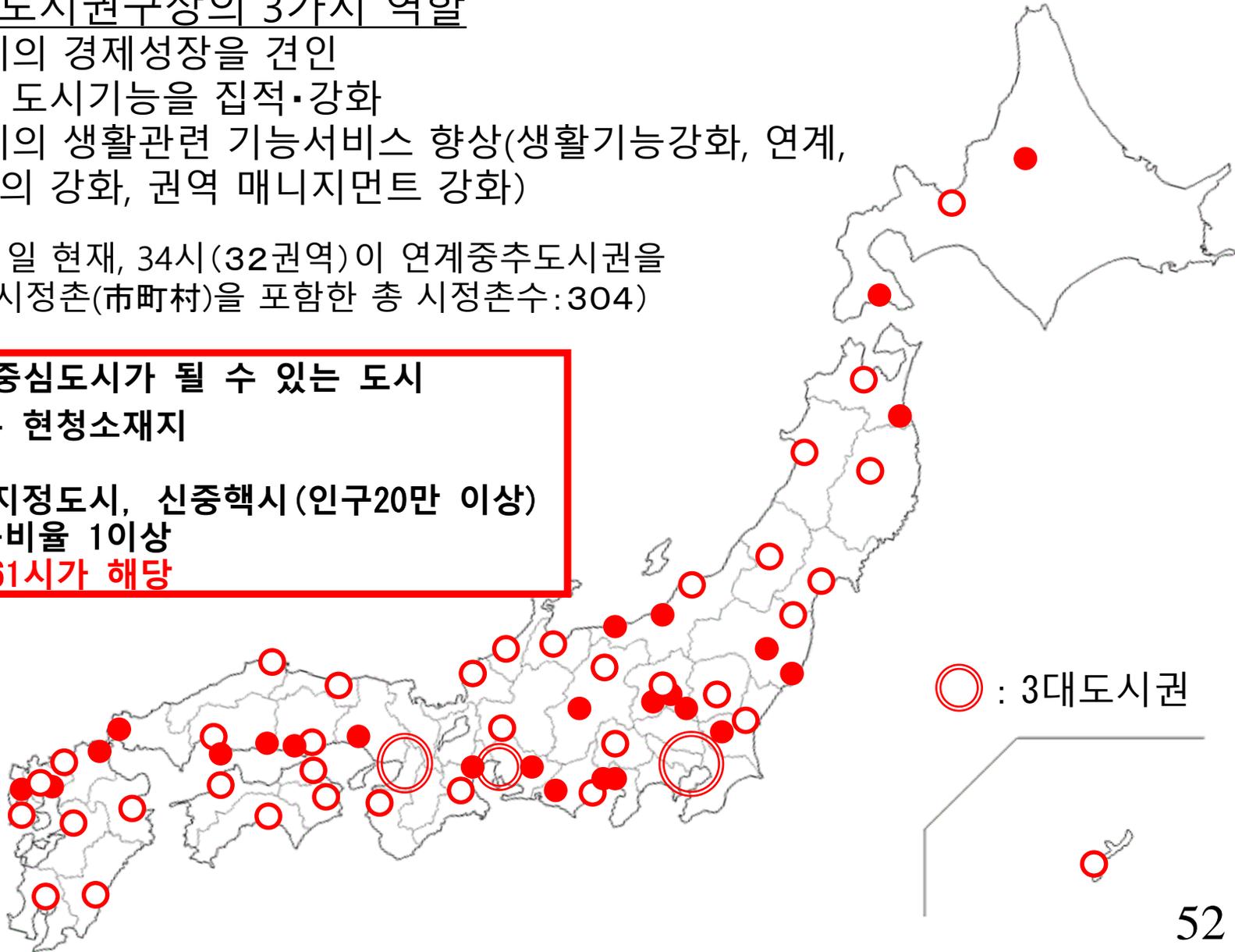
● 연계중추도시권구상의 3가지 역할

- ① 권역 전체의 경제성장을 견인
- ② 고차원의 도시기능을 집적·강화
- ③ 권역 전체의 생활관련 기능서비스 향상(생활기능강화, 연계, 네트워크의 강화, 권역 매니지먼트 강화)

※2019년 4월1일 현재, 34시(32권역)이 연계중추도시권을 형성 (주변 시정촌(市町村)을 포함한 총 시정촌수:304)

● 및 ○ 는 중심도시가 될 수 있는 도시
그 가운데 ○ 은 현청소재지

- ① 지방권의 지정도시, 신중핵시 (인구20만 이상)
- ② 주야간인구비율 1이상
→ 전국 61시가 해당



◎ : 3대도시권

수도사업의 광역화·민영화

<2018년 12월 '수도재정의 방향성에 관한 연구회' 보고서' (개요)>

● 수도사업현황과 상정되는 과제

① 경영환경의 급속한 악화

- 급격한 인구감소로 2065년에는 유수(有収)수량이 피크시의 약 40% 감소 수준
- 노후화대책과 재해대책에 따른 갱신수요의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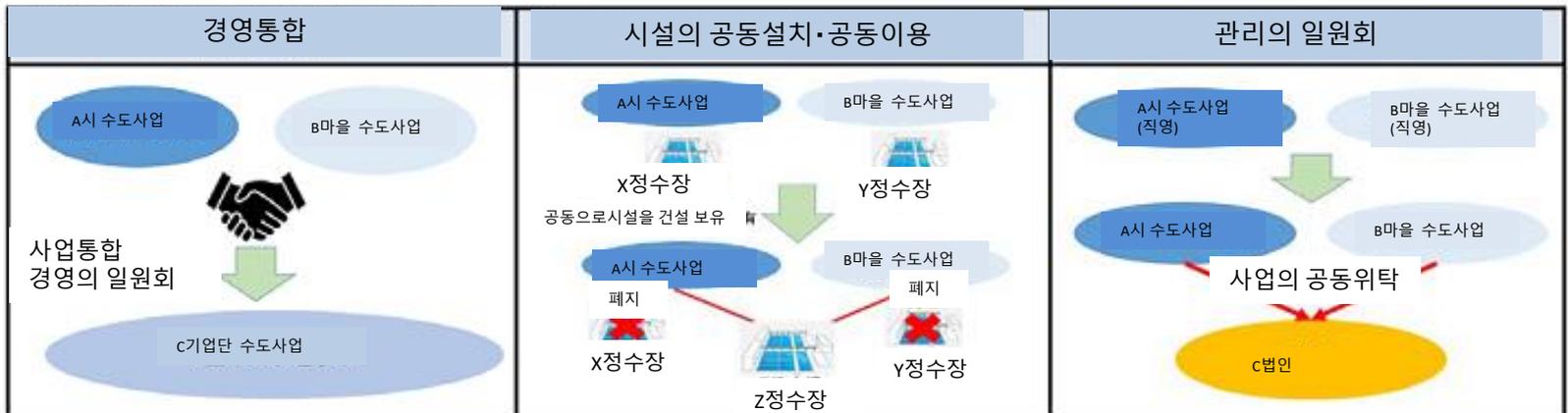
② 직원수 감소에 따른 전문인재 확보 등의 조직체제 강화

● 향후 구체적인 대응 방안

① '광역화 추진 플랜'에 의한 광역화 추진

- 시정촌의 구역을 벗어난 광역화는 폭넓은 효과를 기대할 수 때문에 다양한 대응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광역화의 주요 유형의 이미지]



② 적절한 어셋 매니지먼트에 입각한 착실한 갱신투자 촉진

향후 과제

③ 격차 시정을 위해서는
지방의 노력만으로는 한계

고속철도의 네트워크 현황

◆ 간사이의 고속철도망 과제

- 도카이도, 산요만 참여하는 신칸센 네트워크
- 고속철도 공백지역 : 교토부 북부



		기본계획	정비계획	사업상황			기본계획	정비계획	사업상황
수 두 권	추오신칸센	'73.11.15	2011.5.26	공사중	간 사 이 권	호쿠리쿠신칸센	'72.7.3	'73.11.13	공사중
	도호쿠신칸센	'71.1.18	'71.4.1	사업완료		산인신칸센	'73.11.15	미책정	-
	조에츠신칸센	'71.1.18	'71.4.1	사업완료		시코쿠신칸센	'73.11.15	미책정	-

1. 도쿄 중심의 고속철도망
2. 지방의 고속도로는 꿈김
3. 항만기능은 도쿄, 요코하마·오사카, 고베로 집중
4. 파이프라인도 태평양 쪽이 중심



서일본 연안부 지방의 발전축 결여가 문제

고속도로망 현황

서일본 연안부 유일의
고규격 간성도로망
공백지대

고규격 간성도로망의 공백지대는
일본 전역에 **3군데**이며 그 밖에
미결정구간이 존재

미싱 링크의 존재



산인자동차도
(미스미~마스다) 총93k
중 미결정구간 38K

시코쿠횡단자동차로
(우즈미~히라타)
총37k
가운데 미결정구간 29K

사업실시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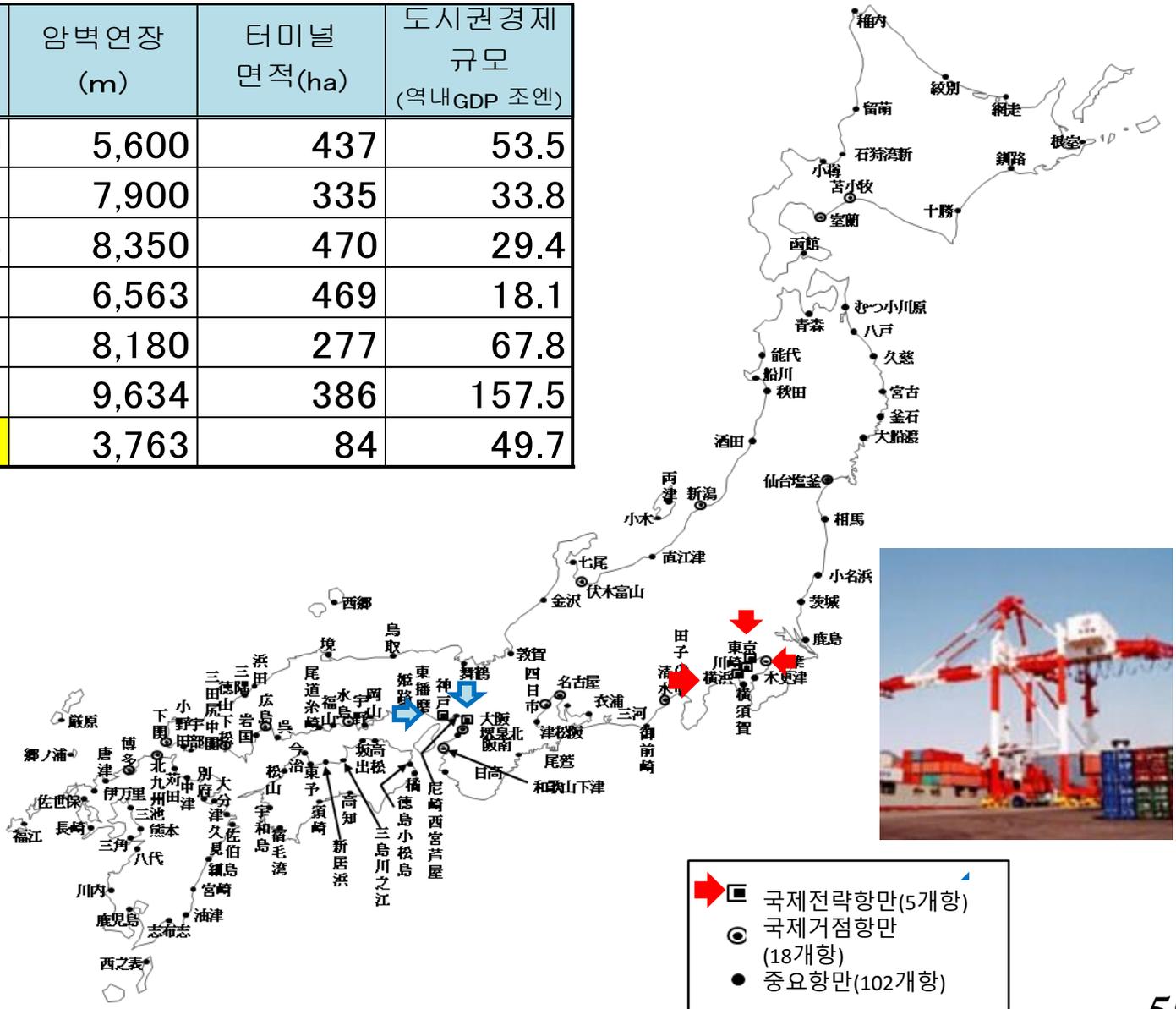
복구도로로
사업실시중

凡例

供用中	6車線 4車線 2車線
事業中
調査中	□□□□□□
その他主な路線	○ ○ ○ ○ ○ ○

서일본 연안부에 편재되어 있는 항만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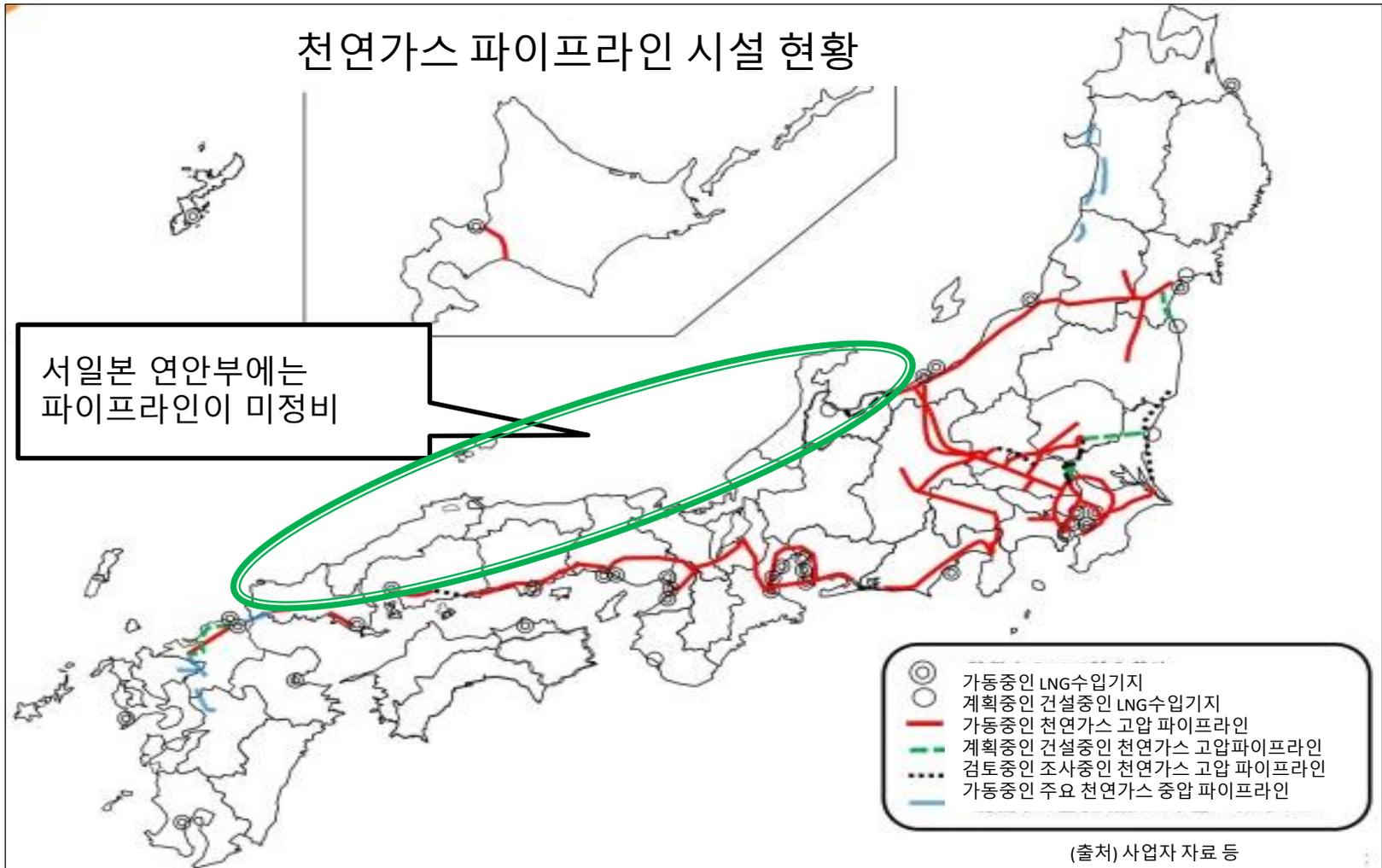
항구명	갠트릭레인 기수	암벽연장 (m)	터미널 면적(ha)	도시권경제 규모 (역내GDP 조엔)
상해	60	5,600	437	53.5
싱가폴	87	7,900	335	33.8
부산	74	8,350	470	29.4
청도	67	6,563	469	18.1
고베·오사카	53	8,180	277	67.8
도쿄·요코하마	76	9,634	386	157.5
서일본연안항구	17	3,763	84	49.7



- 국제전략항만(5개항)
- 국제거점항만
(18개항)
- 중요항만(102개항)

일본의 에너지 인프라 현황

- 가스 파이프라인 · LNG기지가 서일본 연안부에 편재
- 국토강인화, 리던던시 확보 관점에서 공급의 다중화를 추진하여 전체 최적의 네트워크 공급 접속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외국인의 급증 속도에 지방이 따라가지 못함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외국인 노동자 수용 문제

- 재류외국인은 최근 증가 (1985년:약85만명 → 2018년:약273만명)
외국인 노동자수도 급증 (2008년:약49만명 → 2018년:약146만명)
2019년4월에는 새로운 재류자격이 마련되어 장래적으로 가족 동반의 외국인 자녀를 포함하는 추가 증가도 전망
- 외국인력의 적정·원활한 수용 촉진을 위한 대응과 함께 외국인과의 공생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환경 정비 추진이 급선무

<마을·사람·일 창생기본방침2019(2019년 6월21일 각의결정)>

- 제2기의 새로운 관점 가운데 하나는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거주지와 역할을 지니고 활약할 수 있는 지역사회 실현이 포함

<2018년 12월 외국인력 수용·공생을 위한 종합적 대응책>

- 외국인과의 공생 사회의 실현을 위한 의견 청취·계발 활동 등
- 생활자로서의 외국인에 대한 지원 (의료 등 생활 서비스 환경 개선, 외국인 아동 학생 교육 등의 내실화 등)
- 외국 인력의 적정하고 원활한 수용 촉진을 위한 노력 ○ 새로운 재류관리체제 구축

→ 2019년도 말 개정을 위해 긴급한 과제를 중심으로 내용을 내실화

◆외국인력 수용·공생을 위한 종합적 대응책의 내실화를 위한 방향성(2019년 6월)

- 외국인력의 원활하고 적정한 수용 촉진 (특정기능외국인 대도시권 등으로의 집중 방지책 등)
- 공생 사회 실현을 위한 수용 환경 정비
- 유학생의 철저한 재적 관리·기능 실습 제도의 추가 적정화
- 유학생 등 국내 취업 등 촉진

세계와의 대교류가 이러한 상황을 타개

일본 항만으로의 외국무역 정기 컨테이너 항로 (한국)

(2019년5월1일 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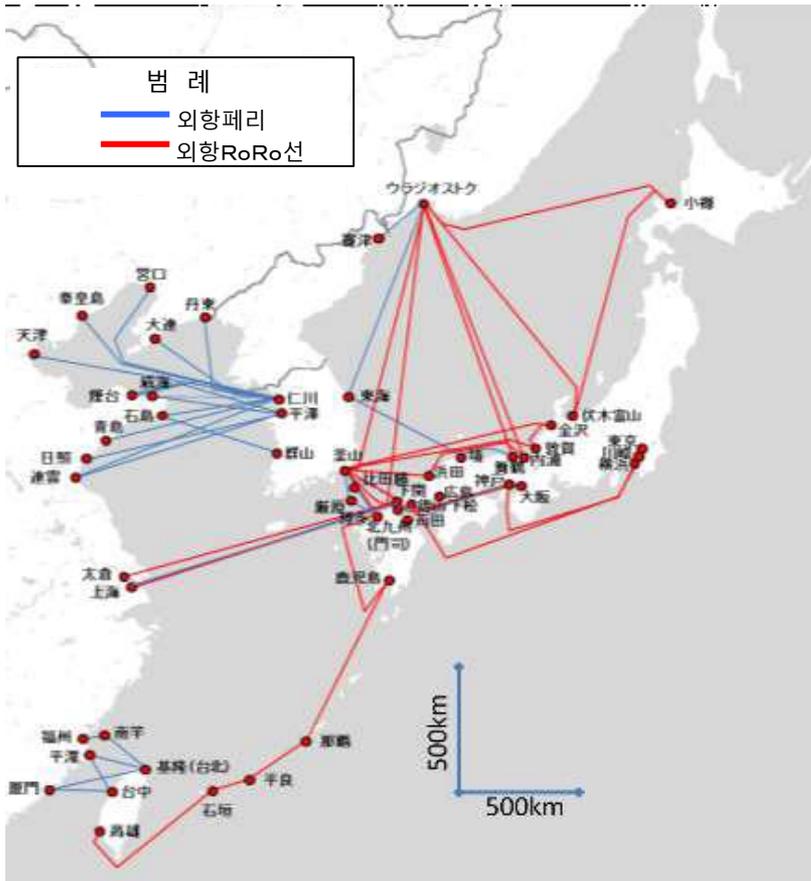
항만	편/주	항만	편/주	항만	편/주	항만	편/주	항만	편/주	항만	편/주
도쿄	11.0	토마코마이	4.0	후시키 토야마	2.0	후쿠야마	5.0	이마바리	4.0	센다이	2.0
요코하마	10.0	이시카와 완신	1.0	가나자와	6.0	히러시마	10.0	미시마 카와노에	9.0	시부시	5.0
카와사키	1.0	하치노헤	2.0	츠루가	2.0	도쿠시마 쿠다마츠	8.5	고치	1.0	합계	226.6
나고야	11.0	센다이 시오카마	2.0	시미즈	4.0	오타케	2.0	이마리	3.0		
윳카이치	3.0	아키타	2.0	미카와	3.0	이와쿠니	2.5	나가사키	3.0		
오사카	9.0	사카타	2.0	마이즈루	3.0	우베	1.0	미이케	2.0		
고베	9.0	카시마	1.0	와카야마 시모즈	0.6	미타지리 나카노세키	2.0	야츠시로	3.0		
시모노 세키	1.0	치바	2.0	사카이	5.0	도쿠시마 코마츠시마	3.0	구마모토	3.0		
기타큐슈	16.0	니가타	4.0	하마다	2.0	다카마츠	4.0	오이타	3.0		
하카타	12.0	나오에츠	1.0	미즈시마	11.0	마츠야마	4.0	호소시마	4.0		

- 지역격차시정의 최후 방법은
일본 서쪽 연안부의 교류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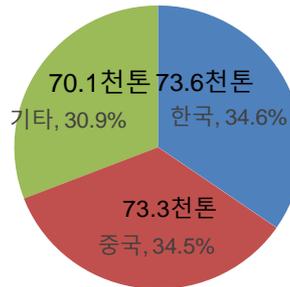
일본의 국제페리·RORO선 네트워크

○일본을 잇는 국제 페리·RORO선은 중국·한국방면을 중심으로 각각 8항로, 11항로가 운행되고 있음
 ○중국·한국 방면의 화물량으로 70%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 지역 화물량은 최근들어 감소세

일본 주변의 국제페리·RORO항로 현황 (2017년9월 현재)



【일본 도착국·원산국별 국제페리·RORO선 화물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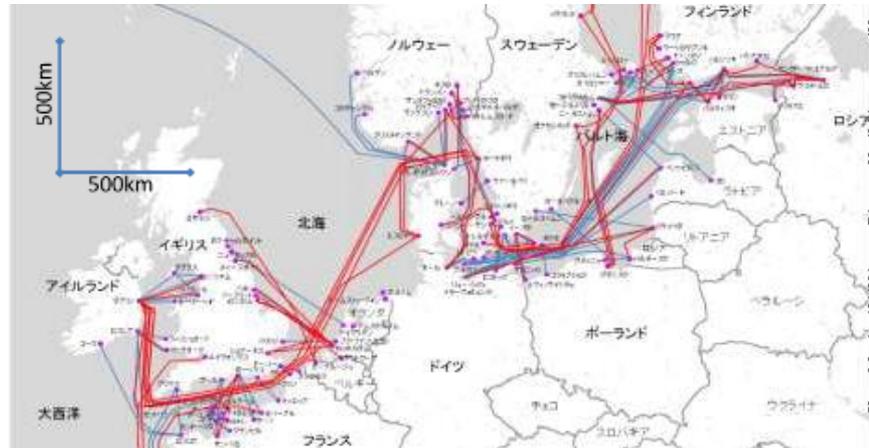
자료) 유닛로드 화물유동조사 (2006년 항만국) 데이터를 토대로 작성

【중국 한국 방면 국제 페리·RORO선 화물량과 전화물량에 대한 비율】



출처 : 항만통계 및 관리자 작성자료를 인용하여 항만국이 작성

【참고】유럽 북부 국제 페리·RORO항로 현황 (2017년9월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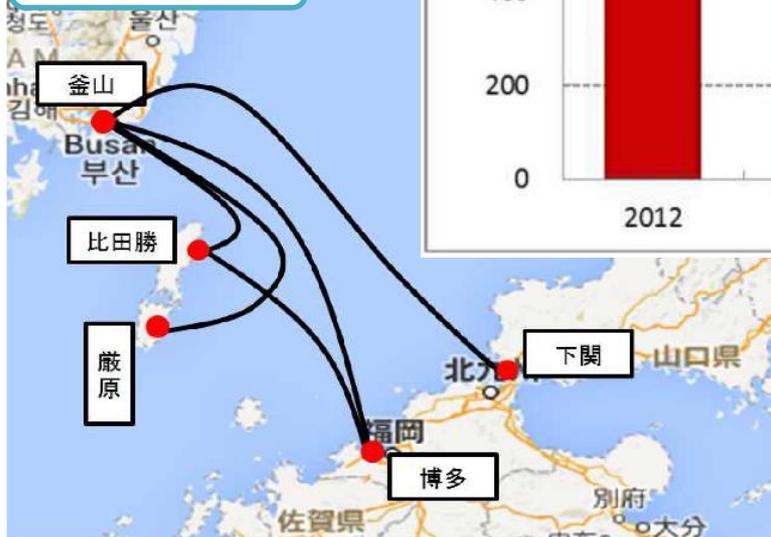
출처: RORO&Ferry Atlas 2016/17, 국제수송핸드북 2017년도판 각선사 HP를 인용하여 국토교통성 항만국이 작성

외국여객정기항로 승객수 (외국인 포함)추이

- 외국여객정기항로 가운데 승객 대부분이 한국항로승객



한일주요
정기항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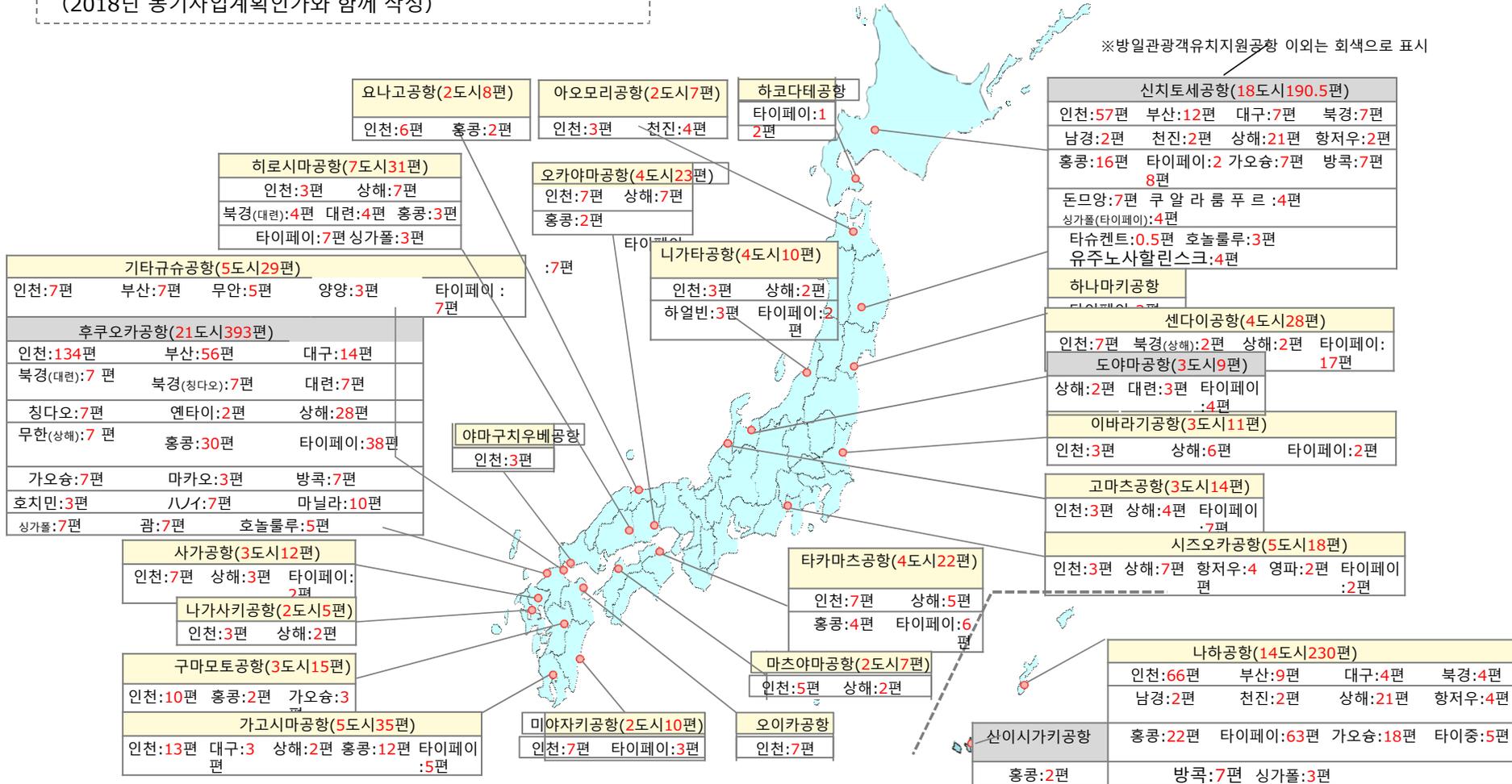


지방공항의 국제항공 네트워크 전개

2018년 동기 운항 당시 1주당 국제정기여객편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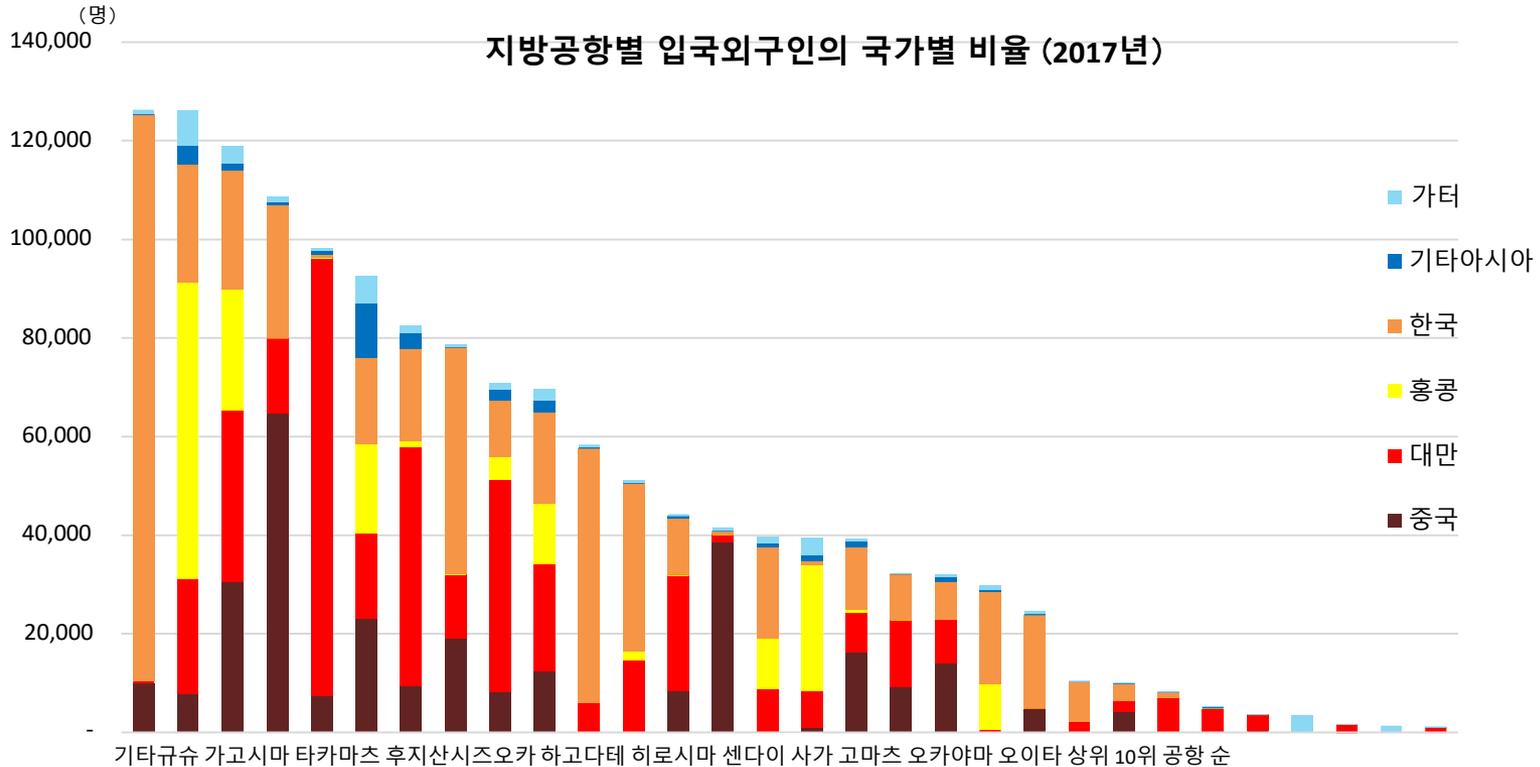
[표기 : 목적지 (경유지)]

취항도시수·총편수에는 경유지도 포함
(2018년 동기사업계획인가와 함께 작성)



지방공항별 입국외국인수

- 모든 지방공항이 동아시아의 4개국으로부터의 입국자가 대부분을 차지
- 홍콩으로 부터의 입국은 서일본 지역에 지리적으로 편중



(출처) 법무성 '출입국관리통계'에 의해 항공국이 작성 (2017년)

※또한 출입국관리통계 수치는 JNTO가 공표한 '방일 외국인관광객수'와는 집계 방법이 상이하기 때문에 일치하지 않음.

입국외국인수가 1,000명 이상인 공항을 집계

※방일관광객유치지원 공항 이외의 공항은 회색으로 기재

출처: 국토교통성 '방일관광객 유치지원 공항 인증 등에 관한 간담회' 2018년 제1회 팔로우업 회의 자료

- 같은 문제로 고민하는 한일 양국의 지방교류가 지역활성화와 시정격차에 있어 하나의 해답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함께 생각해보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